ISSN 2093-0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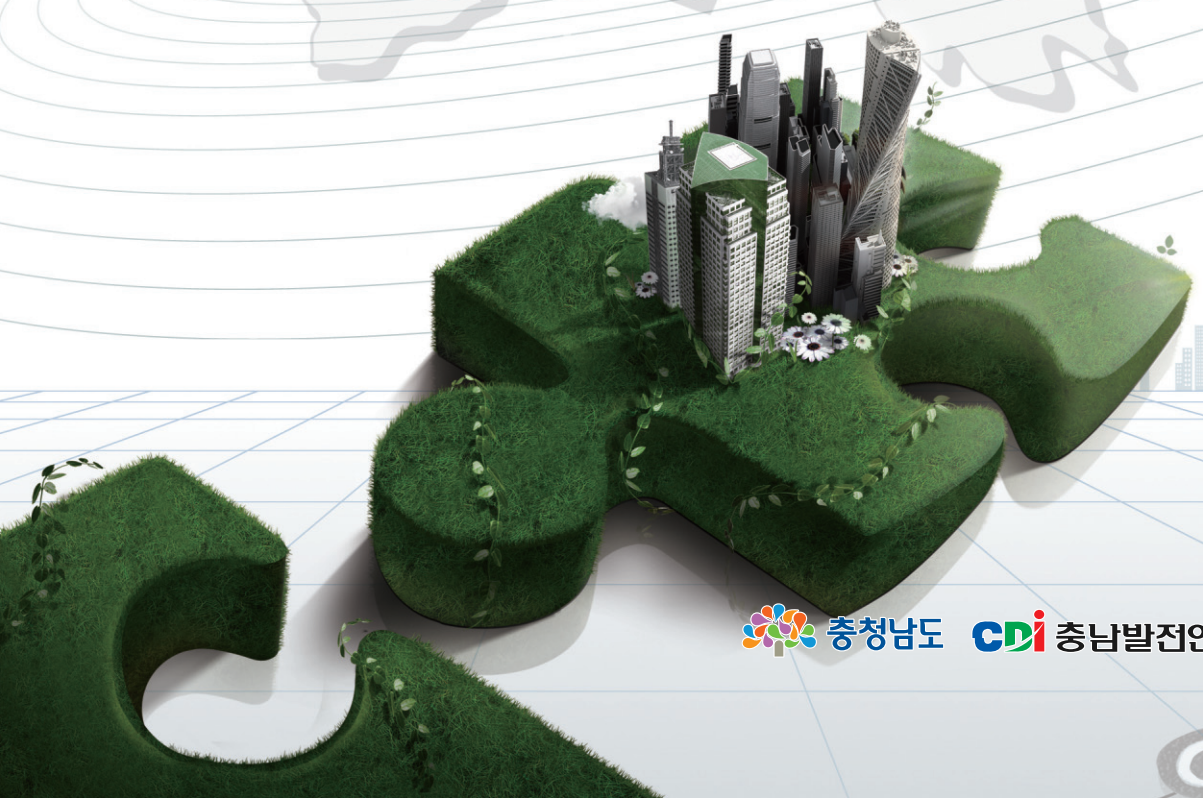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August
2013. 8

ISSUE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과제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기업탐방 다시 뛰는 여성의 희망파트너 ㈜나눔커뮤니케이션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경제일지
경제지표



충청남도 CDI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 8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강현수
편집위원장 최운현 · 정종관
편 집 위 원 오세현, 백운성
집 필 진 총괄 임형빈
경제동향 임재영, 김양중, 홍성효, 김혜정, 이윤경
경제일지 윤찬수, 이성학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과제 *3*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12*

기업탐방 다시 뛰는 여성의 희망파트너 ㈜나눔커뮤니케이션 *23*

경제동향 충남경제동향 (요약) *33*

1. 경기
2. 산업활동
3. 소비 · 물가
4. 수출입
5. 고용
6. 금융
7. 건설 · 부동산

해외경제동향 (요약) *52*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유로지역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59*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73*

2. 충남 주요경제지표 *75*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77*

부록 1.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93*

2.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95*

3.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97*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과제

이 상 준 |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1. 전통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임

○ 전통시장은 발생 특성상 도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형성과 발전, 쇠퇴의 과정이 유사함.

- 대부분 사람들의 모임이 활발한 중심시가지 인근에 입지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밀집되고 다양한 시설·공간을 보유하여 사람들의 지속적인 이용이 이루어짐.

○ 전통시장은 지역대표 상업·경제시설이면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역사·문화자산으로서 지역내외 사람들이 만나는 첫 모습이자 대표 얼굴임.

- 따라서 시장의 역할은 단순한 상업시설·공간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지닌 '커뮤니티 장소'로서 기능을 가짐.

○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도시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써 전통시장의 쇠퇴는 중심시가지, 즉 구도심의 쇠퇴를 의미함.

<표 1> 전통시장의 변화 모습

주 : 이상준(2012),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p.19.

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과 유통의 대형화 등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음.

- 시설노후화, 지역인구 감소, 소비패턴 변화, 현대적 경쟁업태 확산 등 여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시장 쇠퇴는 단순히 상업공간 쇠퇴가 아닌, 삶의 터전이자 역사·문화적 자산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 기존의 지역 상권의 중심이었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2002년 이후 지원법(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0여년 간 약 13,779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공간 개보수 및 확충, 상인역량강화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중소기업청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전통시장은 73개로 전국 1,517개 대비 약 4.6%에 불과하지만 지원사업 규모는 전국 5번째 수준으로 분석됨

<표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 현황

순위		계		1		2		3		4		5	
시도				경남		전북		경북		경기		충남	
					%		%		%		%		%
전통시장(수)		1,517	100.0	151	10.0	64	4.2	178	11.7	150	9.9	71	4.7
계	사업수(건)	1,918	100.0	266	13.9	132	6.9	154	8.0	135	7.0	141	7.4
	국비(백만원)	1,185,268	100.0	103,137	8.7	102,215	8.6	99,959	8.4	99,257	8.4	93,320	7.9

주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 현황, 2010.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편임.

-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을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명 실패한 경우도 많은 편임.
- 이에 대해, 1) 전통시장 특성 반영 미흡, 2) 획일적 사업, 3) 상인역량강화 미흡 등 다양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음[1].

○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1) 상인역량강화, 2) 문화·관광 중심 사업, 3) 유형화·특성화 등 차별화 전략, 4) 상권 단위 지원 등으로 전환하고 있음.

○ 여전히 전통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한 중장기적인 정책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3>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2011년 기준)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금액(억원)</th><th>추진사업내역</th><th>효과 및 문제점</th></tr>
<tr><td rowspan="5">전국</td><td>소계</td><td>13,779</td><td>–</td><td rowspan="9">[효과]
■ 시설개선·빈점포 감소(약 729개 감소)
■ 소비자 일평균 방문 증가(약 5,000명)
■ 매출액 증가

[문제점]
■ 전통시장의 특성 반영 미흡
– 시장 특성별 활성화 미흡
⇒ 차별화된 지원전략 마련 필요
– 막대한 사업비 요구 계획 수립
⇒ 지역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천편 일률적인 지원사업
– 기반시설 위주의 일률적 사업
⇒ 계획수립에 대한 다양성 부여
⇒ 경영 및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상인역량강화 미흡
– 지원 중심의 사업 추진
⇒ 상인의 자발적 참여 미흡</td></tr>
<tr><td>평균</td><td>10.8</td><td>–</td></tr>
<tr><td>시설현대화</td><td>12,050
(87.5%)</td><td>아케이드, 주차장, 건물개량, 진입로 등</td></tr>
<tr><td>경영혁신</td><td>1,729
(12.5%)</td><td>마케팅, 상인교육, 공동상품권 등</td></tr>
<tr><td rowspan="4">충남</td><td>소계</td><td>2,555</td><td>–</td></tr>
<tr><td>평균</td><td>34.5</td><td>–</td></tr>
<tr><td>시설현대화</td><td>2,450
(95.9%)</td><td>조차장 조성 809억원(33.0%), 아케이드 548억원(22.3%), 공설마트 신축 270억원(11.0%), 진입로 설치 150억원(6.2%), 장옥개보수 145억원(5.9%) 등</td></tr>
<tr><td>경영혁신</td><td>105
(3.1%)</td><td>구조개선사업 51억원(48.6%), 공동마케팅 17억원(16.2%),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11억원(10.5%),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3억원(21.9%) 등</td></tr>
</table>

주: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1~' 10년 충남 전통시장 추진현황, 충청남도, 2012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2, pp.10~11.

3. 변화의 시작 : “무엇을” 이 아닌, “어떻게” 를.

○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의 변화의 목적은 명확함.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상인 스스로 인지하게 하는 것임.
- 이로 인해 상인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1)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1) 상인역량강화, 2) 문화관광 중심의 사업 추진, 3) 유형화특성화를 통한 차별적 사업 추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 또한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연구원 등) 등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짐.

○ 상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 현재와는 같이 전문기관을 통해 상인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한정된 시간에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함.
- 그러나 무엇보다 상인 스스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함.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상인이 최고의 전문가임.

- 전통시장은 상인에게 있어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상인은 누구보다 전통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이며, 특히 한정된 시간에만 개별 전통시장에 대해 익숙해지는 전문가보다 전통시장을 더 잘 알고 있음.
- 따라서 상인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상인역량강화 방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임.

○ 상인에게 “어떻게”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왜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활성화 수준이 낮은지, 왜 상인들이 사업 추진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지, 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는 알면서도 추진하지 못하는지, 왜 정부가 생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4. 변화의 방법 : 지속적인 관심과 자극.

○ 전문기관의 역할은 상인을 도와주는 것임.

- 상인역량강화 및 상업활동지원, 전통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또한 상인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 분명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전통시장 자체나 활성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됨.

○ 그러나 이들이 지역사회(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들이 지원해야 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최소 1,511개(충청남도 73개)임.
- 반면 이들 인력 구성이나 구성 체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표 4> 시장경영진흥원 조직체계 현황(2013년 기준)

기관	부서		업무	인원	연구인력
시장경영진흥원	합계			60	37
	경영기획본부	소계		1	
		전략기획실	기관 운영 관리	5	
		경영지원팀	기관 내 인사관리	8	
		홍보팀	전통시장 홍보, 박람회 개최 등	5	
		미래기획TFT		2	
	상권활성화본부	소계		1	
		상권연구팀	상권개발, 정책개발 연구 등	6	6
		상권육성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	10	10
	사업지원본부	소계		1	
		교육연수팀	상인 교육, 점포지도, 시장전문가, 시장관리자 양성 등	9	9
		마케팅지원팀	공동마케팅, 시장투어 지원 등	5	5
		사업지원팀	온누리상품권, 사업집행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	7	7

주: 시장경영진흥원, http://www.sijang.or.kr, 2012.

○ 첫째, 이들은 소수임.

- 전통시장은 1,511개이지만, 지속적인 교육,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가는 시장경영진흥원 37명에 불과함.
- 시장경영진흥원 전문가 한 명이 평균 담당해야 할 전통시장은 평균 40개[2]임.

○ 둘째, 이들은 외지인임.

- 전통시장은 지역의 경제거점이면서, 정체성 제고를 위한 유산임.
- 이러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즉 충청남도, 시·군, 읍·동·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시장경영진흥원 등 전문가는 외지인으로, 지역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결국 지역과 전통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셋째, 이들은 보편성을 지님.

- 인원과 업무의 한계로 인해, 전문가들은 정책과 지원사업 틀 속에서 개별 전통시장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하게 됨.
- 그러나 전통시장은 입지나 지역, 형태, 용도 등에 따라 서로 다름(서수정, 2003).
-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러한 다름에 기초하여 개별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춰 적

2)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센터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국 상권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 업무가 교육만이 아닌, 창업, 금융지원,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설치 등 개별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인력 산정에서 제외함

용 가능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발굴·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함.

- 즉 보편성을 통한 차별성이 아닌 차별성에 기초한 특성화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구조상 이러한 방식의 전개가 어려움.

○ 넷째, 이들은 물리적 한계성을 지님.

- 전통시장 활성화는 1명의 전문가가 2~3개월의 시간 내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최소 2~3인 이상의 전문가가 1~2년 이상을 1개 전통시장만을 전담하여 계획하고, 상인, 지역주민, 공무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논의하고, 조사·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할 때 최소한의 가능성이 보임.
- 그러나 전국 전통시장을 총괄해야 하는 이들의 역할 상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성을 지니게 됨.

○ 결국, 정부 주도의 전문기관은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를 지님.

- 전문기관은 분명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큰 도움을 주지만, 개별 전통시장이 이러한 도움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 전통시장 전담 전문기관 운영 필요.

- 충청남도 내 개별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전통시장을 전담하여 보다 현실적인 실태 조사·분석, 지역밀착형의 계획수립, 상인 협의 및 참여 유도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함.
- 무엇보다 우리지역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전문가의 육성·활용이 필요함.

5. 지역의 현실 : 지역밀착형 전문기관 운영 필요.

○ 충청남도는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를 중심으로 운영됨.

- 일자리경제정책과는 과장 이하 2~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충청남도 내 73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업무를 총괄함.
- 시·군에서도 전통시장 담당자 1~2명을 배치하여 사업시행을 지원하고 있음.

○ 이들의 역할은 행정적 지원을 전담하는 것임.

- 충청남도 전통시장 담당자는 한 명당 최소 5~6개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음.
- 이들의 역할은 연구나 주민 교육·자문 보다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해결, 행정지원을 지원하는 것임.
-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및 교육·자문은 전문기관(시장경영진흥원, 연구기관(충남발전연구원), 교수 등)을 활용한 “수탁과제” 형태로 이루어짐.
- 이로 인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수립 보다는 당해년도를 기준

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계획수립이 주를 이루게 됨.

○ 결국, “지역밀착형 전문기관”이 필요함.

- 상인은 한정된 자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보다 편안하고 쉽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전문기관”이 필요한 것임.
- 지역밀착형 전문기관은 행정과 상인의 중간에서 지속적인 상인들과의 협의와 교육, 자문, 전통시장별 특성과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6. 지역의 미래 : 충청남도 전통시장지원센터 등 설립

○ 현실을 고려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우리지역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 예산 및 인력 등 현실을 고려한, 1) 충청남도 전통시장지원센터, 2) 전통시장 활동가 제도, 3) 전통시장 활성화위원 제도 등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충청남도 전통시장지원센터를 설립 방안.

-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상인교육, 자문, 지원사업 추진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전통시장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함.
- “센터”형태의 별도기구로 운영하며, 우리지역 전통시장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자(예 충남발전연구원 전통시장연구회 등) 등 5~1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함.
- 운영 예산은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 중 일부분을 활용함. 현재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별도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이 1개 전통시장 당 최소 3~5천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용을 센터 예산으로 환원하여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전통시장 활동가 제도를 운영 방안.

- 전통시장 활동가는 전통시장지원센터 전문가와 별도로, 지역 전통시장에 관심 많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사무장, 지역 대학교수, 연구자 등을 활용하여 운영함.
- 농촌중심지 정책에서 활용하는 “총괄계획가”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함.
-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경험이 풍부한 교육기관을 활용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동가를 육성함.
- 전통시장 활동가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성화 관리·운영, 상인 교육과 자문,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함.
- 전통시장지원센터 내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관리하며, 개별 전통시장을 담당할 경우

일정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함.

○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위원 제도 운영 방안.

- "도시계획위원"과 같은 시·군별 전통시장 지원사업 평가 자문단으로 운영함.
- 개별 시·군별로 전통시장과 관련된 전문가를 1~2명 정도 위촉하여 비상시적 자문기구로 운영함.
-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행정기관 입장에서 실행성,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시행사업 평가, 중장기적 발전비전 구상, 전통시장 자문 등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7. 결언

○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이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함.

○ 또한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해야 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현재의 전문기관이 지닌 한계성이 분명함에 따라, 충청남도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1) 충청남도 전통시장지원센터 :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 전담 기관
2) 전통시장 활동가 제도 : 전통시장 내부에서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총괄계획가
3) 전통시장 활성화위원 제도 : 행정기관 입장에서 시·군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단

○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수립을 도모함.

- 충청남도 내 개별 전통시장 상인의 애환과 고민을 해결하고 역량강화를 도모함.

○ "전통시장 활성화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임.

- 충청남도 전통시장만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상인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시점임.
-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충청남도만의 차별화된 활성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참고문헌

서수정·이창호·정종대·정경일, '재래시장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모델개발', 주택도시연구원, 2006
시장경영진흥원, http://www.sijang.or.kr, 2012.
이상준,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제11권 제3호, 2010
이상준,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2012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 현황, 2010.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1~'10년 충남 전통시장 추진현황, 충청남도, 2012.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2.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이 인 희 |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은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6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 시설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 표 1〉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발전

(단위: MWh)

발전원	2012	%	2011	%
수력	7,652,301	1.5	7,830,652	1.6
기력	216,336,004	42.5	211,204,803	42.5
복합화력	110,881,933	21.8	101,479,384	20.4
원자력	150,327,294	29.5	154,723,106	31.1
집단	12,912,737	2.5	12,429,067	2.5
기타	11,464,060	2.2	9,226,354	1.9
총계	509,574,329	100.0	496,893,366	100.0

○ 충남의 경우 보령(8기), 서천(2기), 당진(8기), 태안(8기) 등 4개 발전소에서 총 26기가 가동 중에 있다. 기수 기준으로 전국 화력발전의 18%를 차지하고, 발전량 기준으로는 40%에 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충남에 과도하게 많은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신설(신보령 1·2호기, 태안 9·10호기, 동부제철 화력발전소, 서천화력)이 계획되거나 건설 중에 있어서 현재도 심각한 환경적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3]의 목적은 충남에 입지한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및 자료 구득은 i) 발전소별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산정을 위해 Clean SYS 자료를 이용, ii) 발전소 대기오염의 사회적비용 산정은 ExternE[4] 방법론을 원용한 AEAExternE의 분석 결과 자료를 이용하였음

○ AEA Technology Environment(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5) 연구는 EU 25개국과 주변 해안지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가장 최근의 연구이면서 연구의 폭을 확대하였고 기존연구(Holland Mandwatkiss)들을 포괄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NH3(암모니아), NOx, PM2.5, VOCs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먼지로 인한 사망, 오존으로 인한 사망, 건강에 관한 제반 비용, 식물에 대한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비용을 산출

2. 충남 화력발전의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

○ 우리나라에 입지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83,465MWh이며, 그 중 화력 발전은 30,941MWh로 37%의 비중을 차지하며, 원자력은 24.8%를 차지함

〈표 2〉 전국 발전소 현황(2013)

원자력(MWh)	화력(MWh)	기타(MWh)	총설비용용량(MWh)
20,715.68 (24.8%)	30,941.15(37.1%)	31,808.51(38.1%)	83,465.35(100%)

자료: 전력통계정보 시스템.2013.5.3

○ 충남의 발전소 총 설비용량은 15,891MWh로 우리나라 발전소 총 설비용량의 19%를 차지하며, 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252MWh로 전국 화력발전소의 49.3%를 차지함

3) 본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전략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환경적 경제적 피해실태와 전망 중 일부임

4) 오래 전부터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ExternE (Extarnalities of Energy, 1999)의 추정 결과는 대기오염 피해 범위로 인체 피해 뿐 만아니라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인용되지만 SO2,NOx. 먼지 등 3가지 물질에 한정하고 있어 대기오염의 총 사회적 비용이 과소 추정될 수 있음

〈표 3〉 충남의 화력발전소 현황(설비용량)

원자력(MW)	화력(MW)	기타(MW)	총설비용용량(MW)
0	15,252.3	638.45	15,890.75

자료: 전력통계정보 시스템.2013.5.3

○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은 2011년 기준 4억9천7백만MWh이며, 그 중 충남의 발전량이 1억1천8백만MWh로 가장 많아서 우리나라 발전량의 23.8%를 담당하고 있음. 다음으로 경남이 7천만MWh, 인천이 6천9백만 MWh를 발전하여, 각각 14%와 13.9%의 비중을 차지함

〈표 4〉 우리나라의 지역별 발전량 (2011년)

지역	발전량(MWh)	%	지역	발전량(MWh)	%
서울	1,384,406	0.28	충북	1,580,100	0.32
부산	39,131,349	7.88	충남	118,040,689	23.76
대구	197,978	0.04	전북	7,181,311	1.45
인천	68,952,842	13.88	전남	69,480,708	13.98
광주	37,370	0.01	경북	71,706,038	14.42
대전	156,054	0.03	경남	69,578,814	14.00
울산	10,749,543	2.16	제주	2,877,993	0.58
경기	23,791,336	4.79	합계	496,893,366	100.00
강원	12,046,834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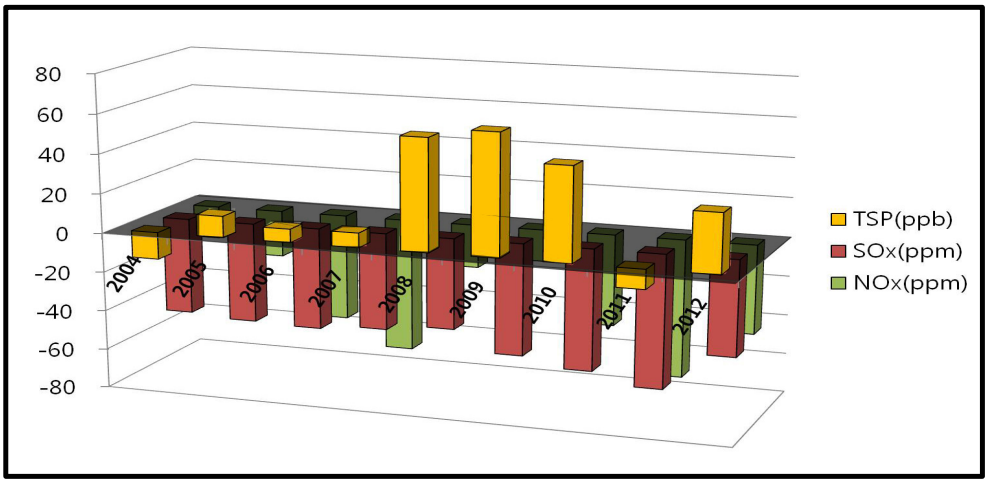
자료: 전력통계정보 시스템.2013.5.3

○ 향후 충남에는 당진 9,10호기, 신보령 1,2호기 등 6개의 화력발전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400 MW급의 당진 부곡 복합화력이 2013년 준공될 예정이며, 1,050MW급의 2기가 태안화력에 2015년, 당진화력에 1,000MW급의 2기가 1016년, 1,000MW급의 2기가 보령에 2017년에 증설될 예정이다. 이 들 화력 발전이 계획대로 증설될 경우, 충남은 8,600MW의 설비 용량이 증가하여 총 24,490MW의 발전 설비 용량을 가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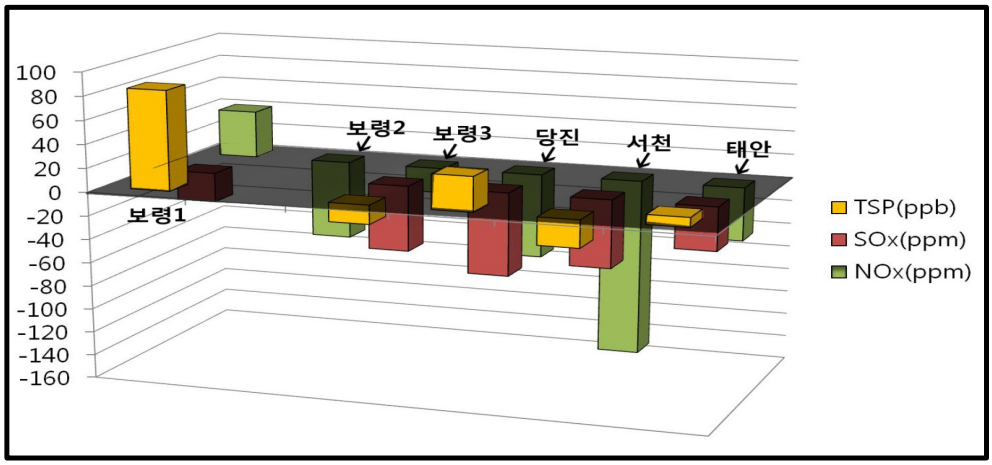
1)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

○ 충남 내 4개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농도와 허용 기준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먼지(TSP)의 평균 농도가 2004년과 201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허용기준치인 30ppb를 초과하였음

○ 보령화력의 1~6호기가 먼지(TSP) 허용농도인 30ppb를 84.2ppb 초과하였으며, 질소산화물(NOx)의 허용 기준치인 150ppm을 40.1ppm 초과하였다. 당진화력은 먼지 허용 기준치를 29.1ppb, 태안화력은 먼지 허용기준치를 7.9ppb 초과하였음



〈그림 1〉 충남 발전소 배출 대기오염 물질 평균 농도 아노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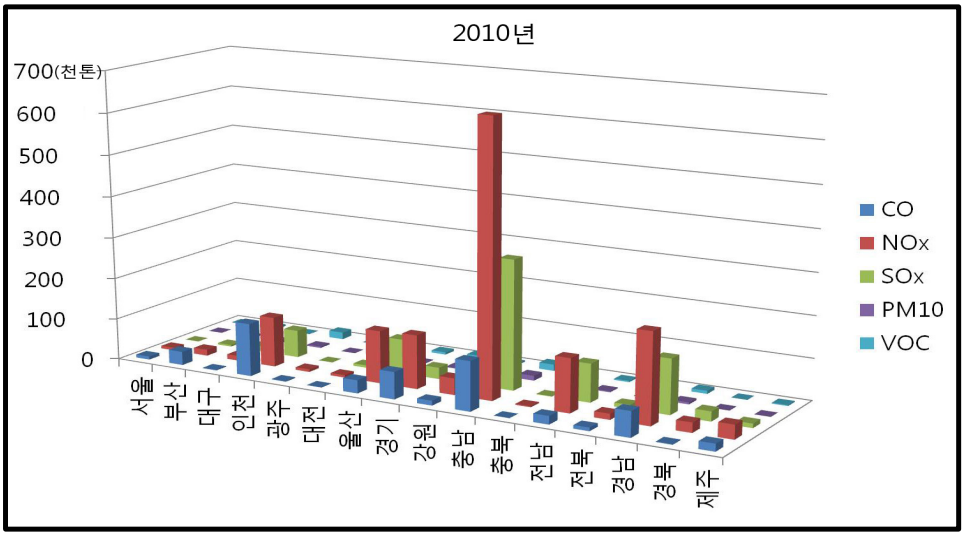
주) 보령1은 보령화력발전소 굴뚝 1~6호기, 보령2는 굴뚝 7~12호기, 보령3은 굴뚝 15~16호기를 의미함. 보령화력발전소의 굴뚝 13, 14호기의 배출가스는 측정되지 않으며, 7~12호기에서는 NOx만 측정됨

〈그림 2〉 충남 화력발전소 연평균 배출가스 농도 아노말리

○ 충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 들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였다. 최근 2008~2012.6 기간 동서발전 등 5개 발전소에서 초과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황산물 109건, 미세먼지 70건, 질소산화물 135건으로 이로 인한 배출초과 부과금은 19억 4,700만원에 달함(새누리당 권은희의원, 2012.10.17, NEWSis)

2)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 충남은 2010년 기준 총 111,021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였는데, 이는 전국의 화력 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37.6%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경남(14.2%), 인천(11.3%)의 순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에너지 산업 연소 오염물질 배출량

〈그림 3〉 지역별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0)

○ 충남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으며, CO, VOC는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함

○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65,436톤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국에 배출된 질소산화물의 42.6%에 해당하며, 황산화 물질(SOx) 배출량은 31,073톤으로 전국 배출

의 38.1%, 먼지(PM10)의 배출량은 1,163톤으로 전국의 41.3%에 해당함

3) 화력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 본 연구는 유럽에서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 이용되어온 ExternE(Extarnalities of Energy)에 기반한 AEA Technology Environment 의 연안지역 추정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대기오염 피해 범위로 인체 피해,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였다는 것

○ 화력발전에 따른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사회적 한계 비용은 2조 570억 원에 이른다. 충남의 경우, 사회적 비용은 7,712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적 비용의 37.5%를 차지하여 여타 지역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상회함

○ 대기오염 물질별로는 질소산화물(NOx)의 사회적 비용이 3,797억 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은 황산화 물질(SOx)의 사회적 비용이 2,704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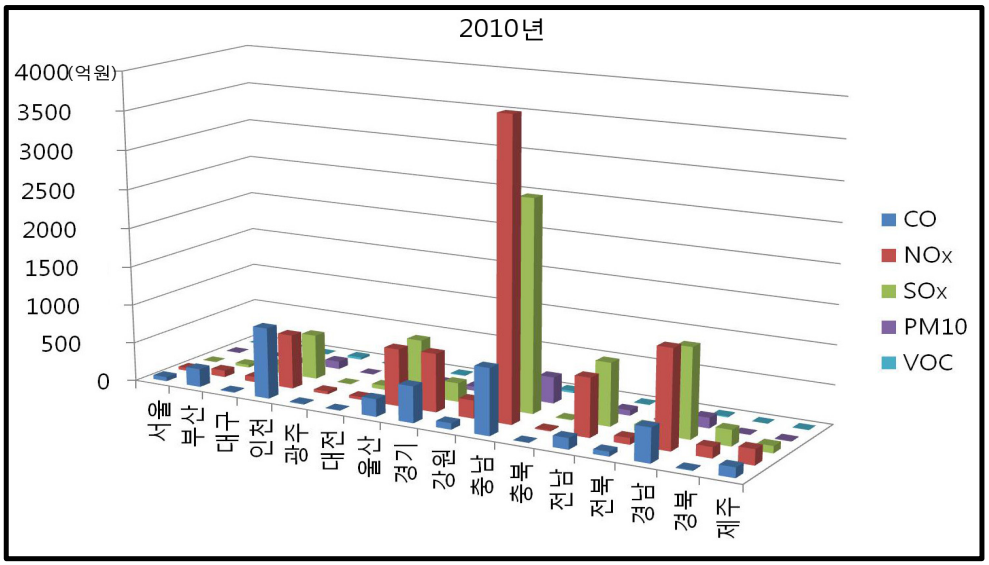
〈표 5〉 지역별 ·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 (2010년)

(단위: 백만원)

	CO	NOx	SOx	PM10	VOC	합계
전국	362,909	890,418	710,151	81,701	11,913	2,057,091
서울	5,333	3,714	44	348	169	9,607
부산	23,353	8,536	3,603	2,408	743	38,644
대구	1,068	6,790	10,497	580	40	18,975
인천	91,034	69,798	57,359	10,009	2,846	231,047
광주	1,168	3,679	9	116	37	5,009
대전	624	3,470	5,275	116	35	9,520
울산	22,637	73,129	72,182	4,700	960	173,609
경기	46,671	74,719	24,093	5,222	1,569	152,274
강원	8,121	23,079	33,310	1,741	559	66,810
충남	84,676	379,725	270,459	33,742	2,588	771,190
충북	337	1,433	923	145	20	2,858
전남	14,336	74,690	80,294	6,818	516	176,654
전북	6,007	8,304	8,138	870	187	23,507
경남	43,632	125,612	114,257	13,491	1,238	298,230
경북	1,039	13,892	20,585	493	32	36,042
제주	12,881	19,846	9,113	899	367	43,107

자료: AEA(2005)의 해안지역 평균(VSL median, VOLY median, SOMO 35) 적용
1유로=1,527원 (2013. 6.20 기준)

○ PM10의 데이터는 PM2.5의 데이터를 이용, CO의 데이터는 강광규(2008)의 연구 결과를 인용



〈그림 4〉 지역별 화력발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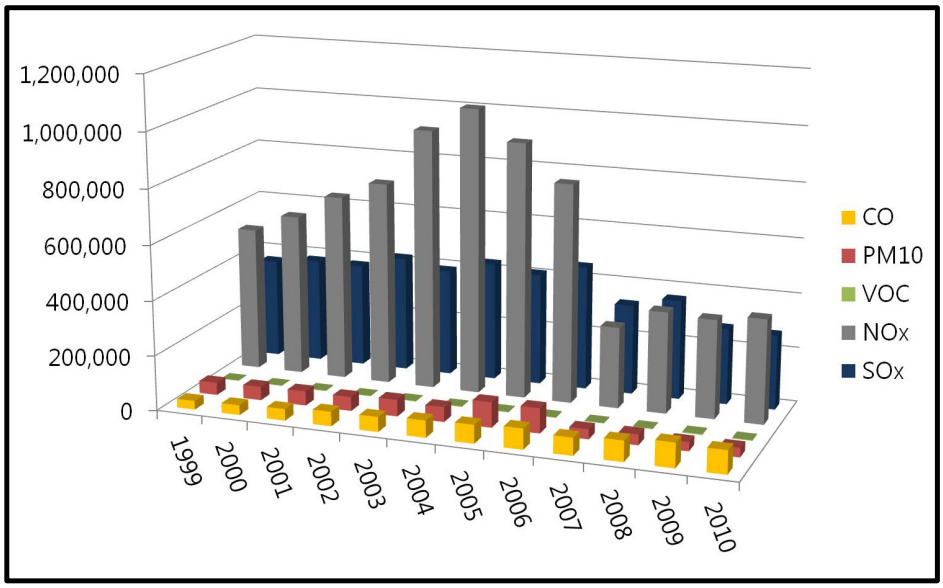
○ 충남에 이어 경남(2천 982억 원), 인천(3천 210억 원)의 순으로 사회적 비용이 큼. 경남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 물질(SOx), 미세먼지(PM10)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충남 다음으로 크며, 인천은 일산화탄소(CO)와 유기화합물(VOC)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충남을 상회함.

○ 충남의 화력발전소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에 의해 지배 되어 왔음

○ 화력발전소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1999년 9천 687억 원에서 2004년 1조 5천 896억 원으로 증가하여 가장 컸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0년 7천 712억 원에 이름

○ 이러한 추세는 질소산화물(NOx)에 의한 사회적 비용과 상관이 있음. 2006년 까지 질소산화물(NOx)는 다른 대기오염 물질을 크게 앞질렀으며, 2007년 이후 황산화물(SOx)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짐

○ 다른 대기오염 물질 중에는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그림 5〉 충남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 발전소별로 화력발전소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보령화력이 2천 511억 원으로 가장 크며 충남 전체의 35.1%를 차지함

○ 다음은 태안화력으로 2천 214억원(30.9%), 당진화력 2천 28억원(28.3%)의 순임

〈표 6〉 충남 발전소별 사회적 비용 (2010)

(단위: 백만원)

사회적비용	CO	NOx	SOx	PM10	VOC	합계
충남	73,155.2	351,856.2	255,811.4	32,668.6	2,197.6	715,68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령화력	23,956.2	117,908.8	97,598.8	10,998.8	675.3	251,138.0
	32.7%	33.5%	38.2%	33.7%	30.7%	35.1%
서천화력	2,872.9	24,810.1	11,296.9	1,105.4	215.7	40,301.1
	3.9%	7.1%	4.4%	3.4%	9.8%	5.6%
태안화력	22,005.8	105,563.0	81,459.9	11,782.2	620.2	221,431.0
	30.1%	30.0%	31.8%	36.1%	28.2%	30.9%
당진화력	24,318.9	103,573.7	65,454.1	8,779.3	686.0	202,811.9
	33.2%	29.4%	25.6%	26.9%	31.2%	28.3%

○ 본 연구의 한계는 대기오염 별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유럽의 연구 결과치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더 나아가 충남의 실정에 적합한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정교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5. Damages per tonne emission of PM2.5, NH3, SO2, NOx and VOCs from each EU25 Member State (excluding Cyprus) and surrounding seas.: Service Contract for Carrying out Cost-Benefit Analysis of Air Quality Related Issues, in particular in the Clean Air for Europe (CAFE) Programme.

강광규 (2008)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정호 외. 2008.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특성. 한국환경과학회 가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66-67.

원두환, 김현제, 김윤경 (2009) 원자력발전 온배수 이용에 대한 소비자 보상액 추정. 경제연구, 27, 189-209.

이태정, 김동술 (2005) 충청권 화력발전소에 의한 수도권지역 오염 부하량 평가. Journal of Center for Environmental Studies, 4, 34-41.

정동진. 2011.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분포특성 및 영향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다시 뛰는 여성의 희망파트너'

–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나눔커뮤니케이션 –

인구 고령화·장기 저성장·실업문제가 고착화된 오늘날 바야흐로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발전과 성장이란 목표 아래 앞만 보고 달렸던 기업들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업이 뿌리박고 있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이익을 공익으로 환원하는 발전모델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일련의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홍보활동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맥락의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재화를 제공하는 등 영리추구보다 공익적 활동에 힘쓰는 사회적기업이 그것이다. 사회적기업은 보통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두고 이윤을 지역공동체로 재투자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기에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재화와 용역을 안정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유대의식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예비)사회적기업은 충남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충남테크노파크(천안시 직산읍)에 터를 마련한 ㈜나눔커뮤니케이션(대표 최영준)이 대표적이다.

㈜나눔커뮤니케이션은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기업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인터넷마케팅 전문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사회 재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소셜마케팅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인터넷홍보마케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제조기업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 어떻게 설립됐나.

'다시 뛰는 여성의 희망파트너.' ㈜나눔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회사 안내 문구다. 이 기업을 간략하고 쉽게 소개하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 각종 교육사업 및 지식 나눔 봉사활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SNS를 활용해 1인 기업화하는 게 골자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기업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는 담당 부서나 직원을 고용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당장 인건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데다, 그 효율 역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떨어진다.

이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눔커뮤니케이션이 설립됐다. 한마디로 대리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것도 출산, 육아, 가사 이후 사회재진출시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말이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등 여성의 사회재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1인 기업 및 기업홍보마케팅 등을 요구하는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오픈마켓 등 인터넷 쇼핑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유통채널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나눔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파악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SNS와 접목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업은 지난해 3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뒤 첫 문을 열었다. 그리고 6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다. 지난해 9월에는 천안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과 협약도 체결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직원은 재택근무자를 포함해 총 13명,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이다. 인터넷홍보마케팅에 관심 있는 주부라면 누구나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재택근무 취업 창업 등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셈이다.

◆ 어떤 일 하나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인터넷 마케팅 부서를 외주를 줘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을 대신해서 운영·관리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농촌에서도 이들의 사업을 접목하면 편하다. 농촌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매우 좋은 데 판매할 수 있는 판로 확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령화된 우리 농촌사회에서 농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단 얘기다. 다시 말해 ㈜나눔커뮤니케이션이 이런 소상공인이나 농민이 몰랐던 가려움을 긁어주고 있다.

최근 들어 쇼핑몰에 대한 중요성과 소비자의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50번에서 500번 이상까지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접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자리 잡았다.

㈜나눔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사회적 흐름을 인지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블로그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발전과 소득창출을 위해서다. 첫 번째 타깃은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을 선택해 대신해서 그 상품을 홍보한다. 홍보도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에 대한 상품 후기와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두 번째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사업과 다양한 축제를 홍보하는 일을 맡는다. 지역 곳곳에서는 계절별로, 시간별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런 축제 홍보는 대부분 광고 대행사가 맡고 있다. 대부분 외지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대목이다.

최영준 대표는 “지자체 공공정책사업에 대한 외주 관심이 아직은 미흡하다”며 “보다 더 분발해 지자체 공공정책 사업이나 축제 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나눔커뮤니케이션의 최근 관심은,

㈜나눔커뮤니케이션 최 대표는 바쁘다. 지역고용 및 인터넷 마케팅, 재택일자리 연구와 사회적기업, 청년 CEO 창출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충남벤처협회 사무국장도 겸하고 있다.

천안 지역은 첨단벤처사업이 많기로 유명하다. 여성인력을 활용한 인터넷마케팅은 천안 지역에서 하기에 적합하고 효율적 수단이다. 앞으로 사이버거래는 더욱 활성화되고, 충남지역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농특산물기업, 마을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영역과 함께 공공기관들의 인터넷 홍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 대표는 "우리 지역은 인터넷 홍보마케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선발주자로서 길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아산시청이나 천안시청과 협의를 통해 인터넷홍보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인터넷홍보가 꼭 필요한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에 저비용고효율 인터넷홍보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동료가 보는 ㈜나눔커뮤니케이션은,

소셜미디어팀 임계순 팀장은 2012년 인터넷 홍보마케팅교육을 받았다. 당시 플로리스트였던 임계순 팀장은 "하던 일을 인터넷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 싶어 인터넷홍보마케팅교육을 받았다"며 "교육을 받다 보니 인터넷홍보라는 것이 매우 방대하고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운 좋게 직업으로 연결됐다"라고 말했다. 또 임 팀장은 "기혼여성들이 가정과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이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팀 구은자 팀장은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몹시 제한적이라는 것에 자극을 받아 뭔가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구 팀장은 "무작정 인터넷홍보마케팅 교육을 받았다. 제대로 된 지식 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인터넷 카페 운영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창의적인 기획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구 팀장의 특성과 능력을 최 대표가 알아채고 카페 운영을 맡긴 것이다.

실제 다른 직원들 경우도 블로그 운영이나 페이스북 마케팅 등 각자의 적성에 맡는 일을 최 대표의 권유로 진행하다가 그 안목에 놀란다. 최영준 대표의 사람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 ㈜나눔커뮤니케이션은 적재적소에 여성 인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

최 대표는 인터넷마케팅 교육대상을 미혼모나 결혼이주여성에게 확대해 자립과 자활을 돕고 싶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인터넷마케팅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자신만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라도 시작해 보고 용기를 내 도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 지금까지 맡은 일과 그 성과,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

유기농 화장품 오썸. 홍성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도라지. 천안시 영농조합법인 농특산물유통사업단 씨씨팜.

<당진 백석올미마을 발효과즐제품 촬영>

<천안 꽃배달 쇼핑몰 마케팅>

<한길코리아 공연>

<유기농 화장품 오썸>

<한국도라지>

<한우데이 돈데이 블로그마케팅>

㈜나눔커뮤니케이션이 직접 인터넷과 블로그를 개설해 관리·운영하는 곳이다. ㈜나눔커뮤니케이션은 홈페이지 개설과 홍보를 통해 얻은 매출의 일부분을 수수료를 받는다. 구체적인 수익은 밝힐 수 없지만, 이들이 관리한 이후 매출은 크게 늘어났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더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문의하고 있지만, 인력이 문제다. 한 마디로 수요는 늘어나는 데 직원이 적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최 대표는 ㈜나눔커뮤니케이션 사회적기업이 충남 곳곳에 퍼지기를 희망한다. 현재 서천지역에서도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 대표는 "이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마을 농산물기업에게 조금 더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곳곳에 이런 기업이 자리 잡아야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홍보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쇼핑이다. 반면 영업은 잘 못한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접목한 것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도내 5개 정도의 나눔커뮤니케이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게 최 대표의 목표이다.

◆ 향후 과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오랜 숙제다. 도시화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다, 제품 조달처를 기존 일반 기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뚫기가 힘들고, 기업경영 등 전문성 측면에서 취약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육성 등 외부 지원 없이도 자력 생존 가능한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역별로 5개 이상 퍼져야한다는 최 대표의 말이 떠오른다. 자력 생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비교적 드물다 보니 이런 최 대표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또 다른 도전이다.

최 대표는 "우리만 있어서는 여성 일자리의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며 "지역이 넓어 서천이 의뢰하면 응대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회적기업이 지역별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스토리텔

링이 필요하다. 역량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를 표현해야 한다"며 "영상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향후 과제"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많은 여성과 자질 있는 여성이 발굴되고 더불어 여성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중소벤처든 사회적기업이든 홍보마케팅이 지역 사회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충청투데이 이주민 기자]**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6월)			소비(6월)	물가(7월)		대외거래(7월)		고용(7월)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05.5	106.3	119.9	105.6	106.2	107.4	45,839	43,299	26,301	25,473	3.1
서울	97.7	102.7	106.9	105.0	106.0	107.6	5,324	11,058	5,337	5,141	3.7
부산	100.4	96.1	144.2	100.0	107.4	108.1	1,182	1,175	1,722	1,656	3.8
대구	114.0	114.9	154.1	115.6	107.6	108.0	608	316	1,244	1,199	3.6
인천	108.5	108.1	140.4	101.8	105.1	106.3	2,051	2,690	1,518	1,454	4.2
광주	107.2	108.2	113.3	96.1	105.7	106.8	1,278	474	735	713	3.0
대전	103.6	104.3	109.6	104.8	106.2	107.4	418	308	759	738	2.8
울산	117.2	115.2	108.0	100.4	107.1	107.5	7,311	7,445	564	552	2.2
경기	112.4	115.2	116.8	109.4	105.9	107.2	8,893	8,683	6,275	6,076	3.2
강원	113.5	114.8	146.6	115.6	105.1	106.6	186	124	750	735	2.1
충북	119.9	116.1	142.8	121.0	106.5	107.4	1,273	557	823	806	2.1
충남	**105.7**	**110.4**	**138.4**	**130.7**	**106.0**	**107.3**	**5,321**	**2,815**	**1,228**	**1,194**	**2.8**
전북	98.0	100.0	111.4	94.6	107.0	107.9	774	338	929	912	1.9
전남	106.1	106.0	108.6	97.6	107.0	107.6	3,689	3,743	946	929	1.8
경북	88.6	89.4	128.5	99.1	106.8	107.2	4,212	1,451	1,466	1,412	3.7
경남	102.2	98.8	120.0	96.8	105.1	106.7	3,311	2,098	1,690	1,651	2.3
제주	117.5	113.6	151.0	111.5	105.4	106.7	7	25	314	306	2.6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경제 동향(요약)

- 6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전월대비 각각 상승
- 6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상승
- 기업경기와 시장경기 전망은 대체로 하락, 산업활동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고용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물가는 안정세, 소비는 증가하였으며 대외거래도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임

경기

- 6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한 112.9를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0로 전월대비 0.1p 상승
- 8월 업황전망BSI는 제조업은 하락, 비제조업은 상승(제조업 76, 비제조업 70)
-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 수출부진 등이 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8월 시장경기 업황전망은 매출을 제외한 업황, 마진, 상품판매가격, 자금사정, 구매고객수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활동

- 6월 광공업 생산지수 -2.5%(107.3), 출하지수 -1.4%(109.4)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반면, 재고지수는 +15.2%(135.4) 증가
-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

소비 및 물가

- 6월 대형소매점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한 129,710백만원, 지수는 130.7
- 7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76,401대로 전월대비 0.3%(+2,729대) 증가
- 7월 소비자물가지수 107.3(+0.8%) 전년동월대비 상승, 생활물가지수 106.0(-0.2%) 전년동월대비 하락

수출입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53억 21백만달러, 석유화학중간원료 +80.5%, 전자응용기기 +29.6%, 반도체 24.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2.5%, 등)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28억 15백만달러, 석탄 +42.5%, 석유제품 +26.7%, 원유 +6.0% 등)
- 7월 무역수지는 25억 7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3억 68백만달러 감소)

고용

- 7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8.7%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1.9%p 증가(67.4%)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1,194천명(농림어업 198천명, 광공업 247천명, 건설업 81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210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60천명 등)
- 7월 실업률 2.8%로 전년동월보다 상승, 실업자 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1% 증가

금융

- 6월 금융기관 수신 증가폭 축소, 여신은 증가세
- 6월 금융기관 총 수신 증감액 -16억원, 여신 증감액 +3,561억원
- 7월 어음부도율 0.73%로 전월대비 0.69%p 상승
- 7월 부도금액 79억 1천만원으로 전월보다 75억 3천만원 증가

건설 및 부동산

- 7월 건축허가면적 608,787㎡로 전월대비 23.3% 감소, 착공면적은 477,506㎡로 1.3% 증가
-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 100.8로 전월대비 0.2%, 전세가격지수 101.2로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천안)
- 7월 토지거래는 11,20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 면적은 9.8% 증가

1. 경기동향

[전국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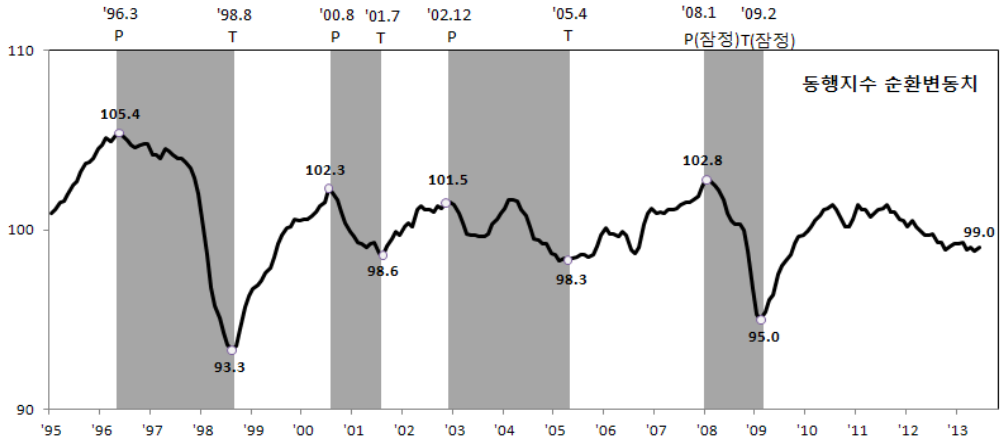
○ 6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5%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0로 전월대비 0.2p 상승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추이

(2010=100)

구분	'12.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p	5월p	6월p
○ 동행종합지수	110.7	111.3	111.8	112.3	112.3	112.9	113.2	113.8
· 전월비(%)	0.6	0.5	0.4	0.4	0.0	0.5	0.3	0.5
○ 순환변동치	99.1	99.2	99.2	99.3	98.9	99.0	98.8	99.0
· 전월차(p)	0.2	0.1	0.0	0.1	−0.4	0.1	−0.2	0.2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6월 전국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9%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대비 0.5p 상승

선행종합지수 추이

(2010=100)

구분	'12.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p	5월p	6월p
○ 선행종합지수	109.1	109.9	110.1	110.4	110.7	111.3	112.0	113.0
· 전월비(%)	0.7	0.7	0.2	0.3	0.3	0.5	0.6	0.9
○ 순환변동치	99.6	100.0	99.8	99.6	99.5	99.6	99.9	100.4
· 전월차(p)	0.3	0.4	−0.2	−0.2	−0.1	0.1	0.3	0.5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상승한 99.0을 나타냄

- 소폭 상승세를 보인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한 112.9를 나타냄

동행종합지수 추이

(2010=100)

구 분	'12.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p	5월p	6월p
○ 동행종합지수	112.0	112.2	111.7	111.0	111.1	112.0	112.5	112.9
· 전월비(%)	0.3	0.1	-0.4	-0.6	0.0	0.8	0.4	0.4
○ 순환변동치	99.6	99.4	99.0	98.3	98.2	98.7	98.9	99.0
· 전월차(p)	0.0	-0.2	-0.4	-0.7	-0.0	0.5	0.1	0.1

주 : p는 잠정치임.

6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비농가취업자수와 전력사용량은 상승세 지속, 대형소매점판매지수와 수입액은 상승 전환되었으며 산업생산지수, 수출액은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함

- 비농가취업자수(+0.6%), 대형소매점판매지수(+1.0), 전력사용량(+0.8%), 수입액(+1.5) 상승
- 산업생산지수(-0.4%), 수출액(-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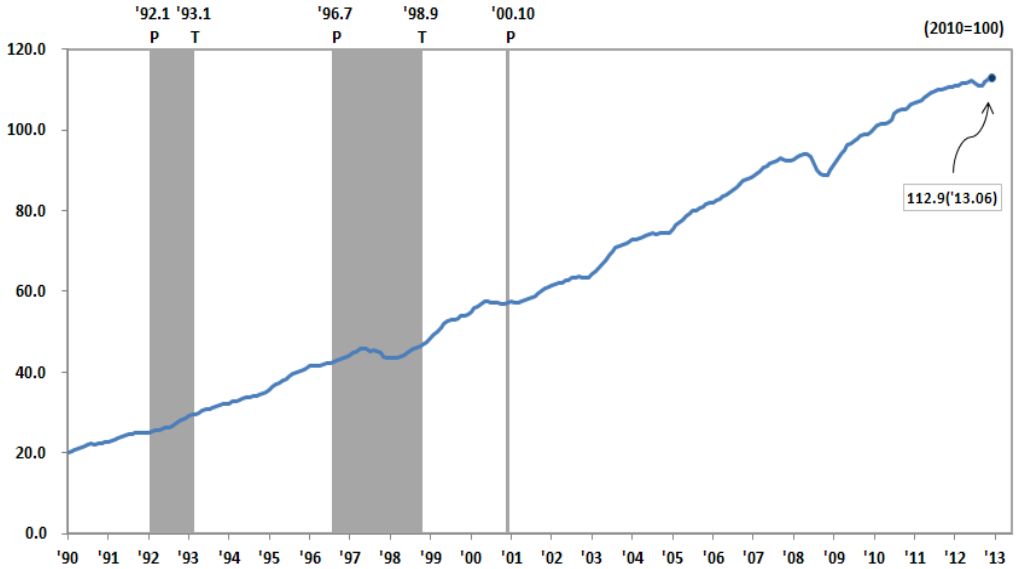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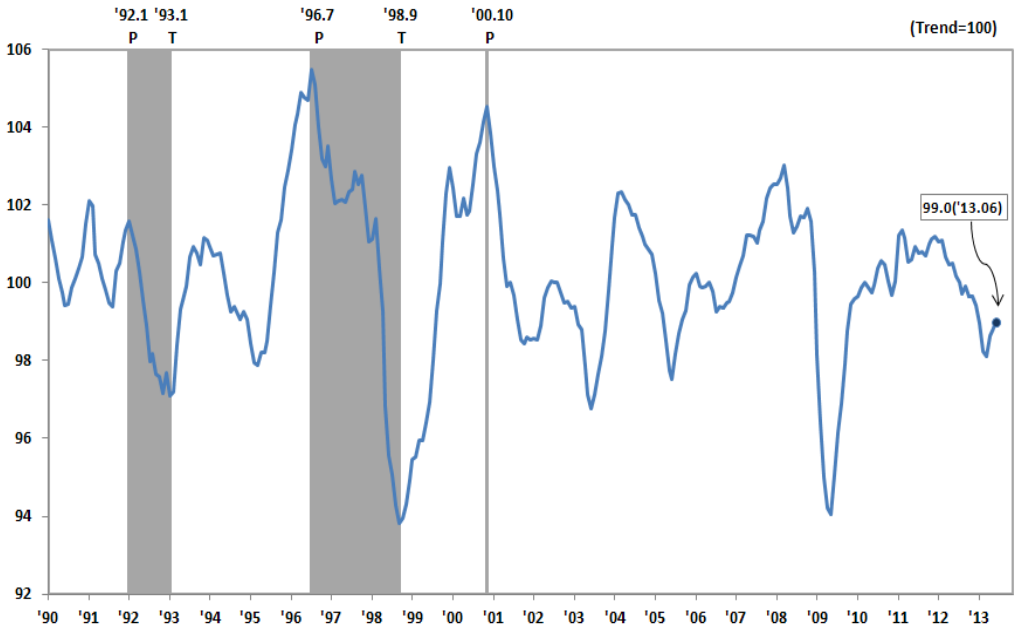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2.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p	5월p	6월p
비농가취업자수	0.4	0.0	-0.1	0.3	1.5	1.7	1.4	0.6
산업생산지수	-0.1	0.2	0.0	0.0	-0.3	-0.5	0.0	-0.4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6	0.7	-8.4	-11.2	-8.3	1.1	-0.5	1.0
전력사용량	-0.1	0.1	0.6	-0.2	0.6	1.1	1.1	0.8
수출액(실질)	2.4	0.7	0.3	0.0	-0.1	-2.7	-0.6	-0.3
수입액(실질)	-1.0	0.1	2.8	2.4	1.7	3.4	-1.3	1.5

주 : 증감률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8월 충남지역 제조업 업황BSI, 자금사정전망BSI 모두 전월대비 하락

- 제조업 업황BSI는 76로 전월(82)보다 6p 하락, 자금사정전망BSI 95으로 전월(98)보다 3p 하락

○ 8월 충남지역 비제조업 업황BSI, 자금사정전망BSI 모두 전월대비 상승

- 비제조업 업황BSI는 70로 전월(67)보다 3p 상승, 자금사정전망BSI는 84로 전월(80)보다 4p 상승
- 충남지역 제조업 업황이 하락 반전된 반면, 비제조업 업황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비록 기준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은 상태지만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제조업의 주요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3.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1]	74	77	83	85	83	81	75(83)	−6(−5)
충 남[2]	74	78	83	85	83	82	76	−6
매출	85	85	89	95	102	98	91	−7
생산	96	95	100	105	102	108	99	−9
신규수주	91	89	93	95	95	93	86	−7
채산성	87	89	92	92	87	91	88	−3
제품재고	108	105	103	104	103	107	116	+9
인력사정	90	84	78	82	86	91	88	−3
자금사정[1]	84	89	90	93	94	98	97(88)	−4(−1)
충 남[2]	83	89	89	93	94	98	95	−3
외부자금수요	110	110	111	110	105	103	109	+6
자금조달사정	92	96	93	100	96	101	100	−1

주 : ( )내는 전국 기준, 업황 및 자금사정을 제외한 수치는 대전충남의 통합 수치임.
1) 대전·충남 업황 수치.
2) 기존 대전·충남 통합하여 공표하였던 업황 및 자금사정BSI가 2012년 1월부터 지역이 분리되어 공표됨.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3.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65	66	71	72	73	70	72(67)	+2(−2)
충 남	64	66	73	71	73	67	70	+3
매출	78	80	79	81	82	76	79(78)	+3(+3)
채산성	82	86	83	78	82	83	84(79)	+1(0)
인력사정	88	84	85	78	87	82	79(86)	−3(−3)
자금사정	85	84	82	85	85	82	84(81)	+2(+1)
충 남	82	82	82	87	87	80	84	+4
외부자금수요	103	103	108	108	103	103	100	−3
자금조달사정	90	89	86	92	93	92	91	−1

$$\text{BSI*(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 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 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시장경기 동향]

○ 7월 충남지역 시장경기는 전월보다 마진, 매입원가는 상승한 반면, 업황과 매출, 상품판매가격, 자금사정, 구매고객수는 하락

- 상승지수 : 마진(+0.8), 매입원가(+5.1p)
- 하락지수 : 업황(-4.2p), 매출(-7.5p), 상품판매가격(-2.6p), 자금사정(-1.3p), 구매고객수(-5.1p)
- 본격적인 중부지방의 폭우와 남주지방의 폭염으로 상대적으로 날씨에 취약한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이 하락한 것이 체감 경기 하락으로 나타남

○ 8월 시장경기 전망은 매출을 제외한 업황, 마진, 매입원가 등 전월보다 하락

- 상승지수 : 매출(+6.6p)
- 하락지수 : 업황(-6.1p), 마진(-10.4p), 매입원가(-6.2p), 상품판매가격(-8.3p), 자금사정(-6.7p), 구매고객수(-3.7p)
-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무더위와 휴가시즌으로 인한 고객 유입 감소 등 비수기적 요인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경기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13.2월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전망)
업황	전국	50.2	55.0	61.7	65.5	57.0	47.9	62.8
	충남	52.9	59.1	58.8	69.6	53.6	49.4	72.5
매출	전국	50.6	53.4	61.1	68.4	57.2	47.6	65.4
	충남	50.9	55.4	61.2	66.9	57.2	49.7	79.4
마진	전국	54.1	58.4	63.4	64.5	62.3	52.3	66.5
	충남	58.4	54.7	66.7	62.4	55.4	56.2	68.3
매입원가	전국	123.7	119.8	121.2	113.9	113.6	116.6	108.8
	충남	130.2	115.0	114.3	106.6	115.3	120.4	115.1
상품판매가격	전국	93.6	95.1	97.7	96.9	94.6	94.2	95
	충남	100.1	98.9	93.3	96.2	99.5	96.9	97.3
자금사정	전국	54.2	55.5	59.4	62.6	60.0	54.2	62.2
	충남	59.9	54.1	62.4	68.3	59.6	58.3	68.7
구매고객수	전국	49.0	52.6	60.5	65.8	55.4	44.8	61.1
	충남	54.5	55.5	62.7	71.4	54.8	49.7	74.7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광공업 산업활동]

○ 6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 전월대비 1.2% 각각 감소

- 전기·가스·증기업,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

○ 지난달 소폭 증가하였던 출하는 6월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였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5.2%로 증가세 지속

- 출하는 전기·가스·증기업,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영향음향통신, 식표품,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
- 재고는 기계장비, 제1차금속, 석유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광공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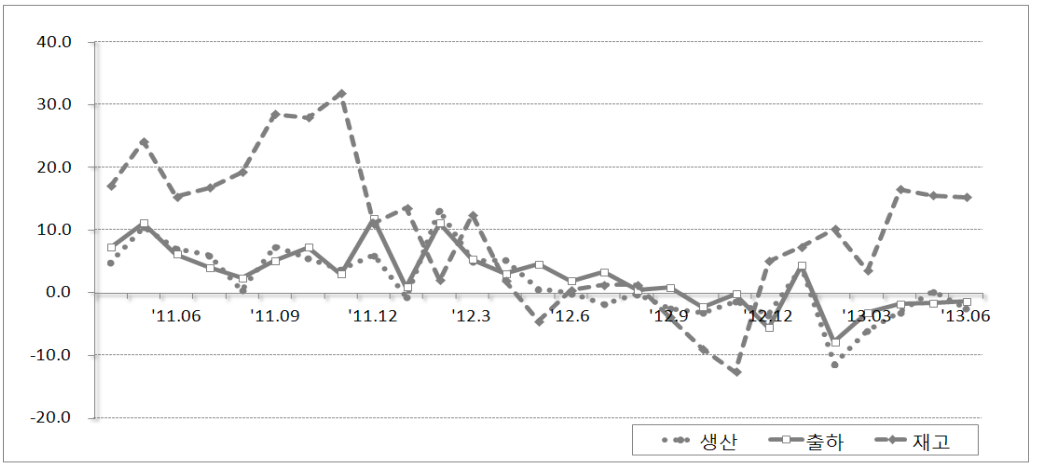
(2010=100.0, %)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P	6월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생 산	110.4	108.0	108.0	109.0	106.1	-2.6	-2.7
	출 하	109.6	108.1	107.3	108.1	106.2	-2.5	-1.8
	재 고	118.4	122.4	120.2	121.8	119.2	3.5	-2.1
충남	생 산	108.4	106.8	104.8	108.6	107.3	-2.5	-1.2
	출 하	111.5	110.0	105.7	109.6	109.4	-1.4	-0.2
	재 고	116.8	129.9	135.5	134.9	135.4	15.2	0.4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청(원지수).

충남의 광공업 산업활동 추이

(전년동월대비, %)



3. 소비 · 물가

[소비]

○ 6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전월대비 −0.7% 감소

-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129,710백만원, 지수는 130.7로 나타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전월대비 0.2%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경상금액, 불변지수, 2010=100,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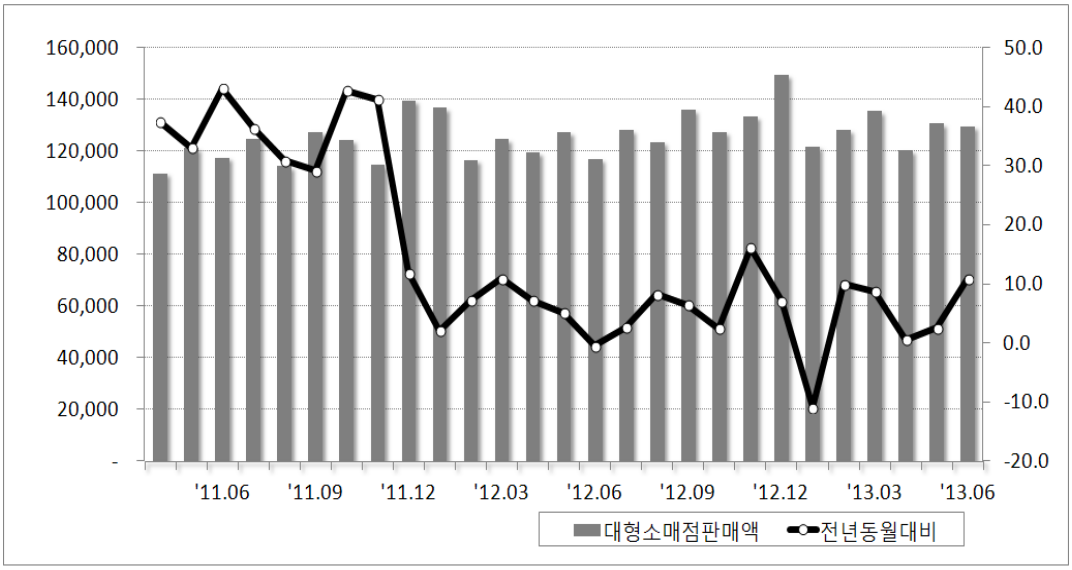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p	6월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판매액지수	100.5	110.4	102.6	109.7	105.6	5.1	−3.7
	판매액	5,681,972	6,312,604	5,838,050	6,291,009	6,033,557	6.2	−4.1
충남	판매액지수	118.8	136.0	121.3	130.9	130.7	10.0	−0.2
	판매액	117,048	135,450	120,308	130,684	129,810	10.9	−0.7

주 : 기 공표되었던 대형마트판매액은 10월부터 공표 중단.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충남의 대형소매점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주 : 대형소매점판매액(좌측), 전년동월대비(우측).

[자동차 등록]

○ 7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동월대비 3.2%, 전월대비 0.3% 각각 증가

- 7월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76,401대로 전년동월보다 27,192대 증가, 전월보다 2,729대 증가
- 승용차(+0.4%), 승합차(+0.3%), 화물차(+0.2%), 특수화물(+0.8%) 등 전월보다 등록대수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특수화물(+7.5%), 승용차(+3.9%), 화물차(+1.7%)는 증가한 반면, 승합차(-0.2%)는 소폭 감소

* 전년동월대비 등록대수 감소 지속에는 2012.7월 세종시출범으로 인한 영향에 기인함.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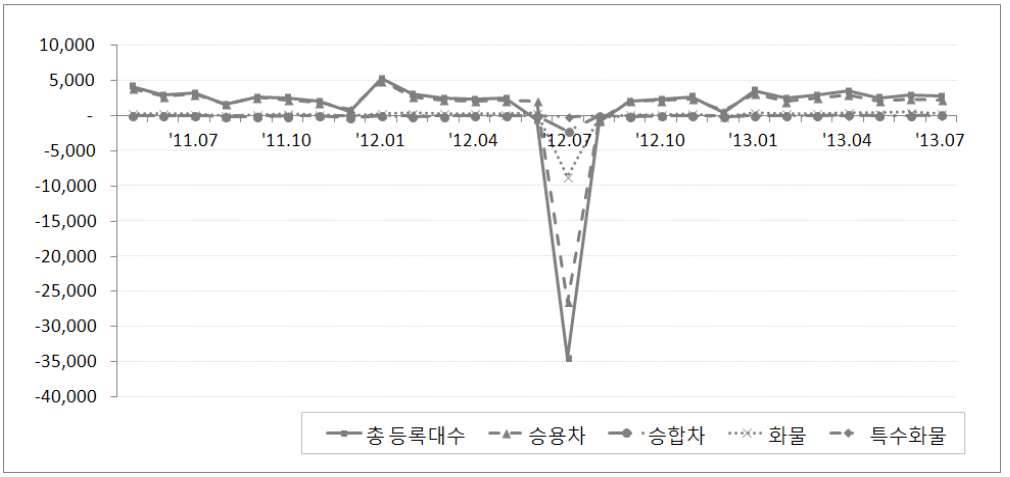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49,209	868,178	870,741	873,672	876,401	27,192	2,729
차종별	승용	609,179	626,387	628,480	630,864	633,075	23,896	2,211
	승합	47,178	46,884	46,930	46,956	47,103	-75	147
	화물	190,024	191,914	192,325	192,837	193,183	3,159	346
	특수화물	2,828	2,993	3,006	3,015	3,040	212	25
용도별	자가용	808,022	827,762	830,165	832,865	835,939	27,917	3,074
	관용	4,010	4,146	4,174	4,207	4,302	292	95
	영업용	37,177	36,270	36,402	36,600	36,160	-1,017	-440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주 :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가 충청남도와 분리됨에 따라 7월 자동차등록대수가 급감하였음.

[물가]

○ 7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전월대비 0.2% 각각 상승

- 농축수산물(-1.7%)을 제외한 공업제품(+0.9%), 서비스(+1.0%)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06.0으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전월대비 보합

○ 신선식품지수는 105.2로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전월대비 0.6% 상승

- 신선채소(+2.7%)를 제외한 신선어개(-1.8%), 신선과실(-6.9%), 기타신선(-21.6)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세를 보임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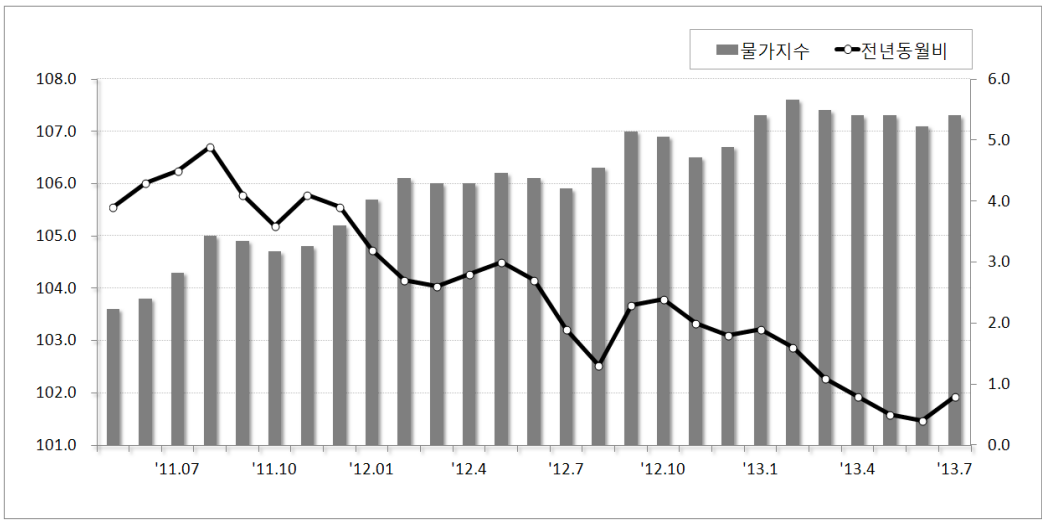
(2010=100,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5.9	107.3	107.3	107.2	107.4	1.4	0.2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6.4	107.3	107.3	107.1	107.3	0.8	0.2
상품 성질별	상 품	108.5	109.7	109.4	109.2	109.4	0.8	0.2
	서비스	104.2	104.9	105.2	105.1	105.2	1.0	0.1
생활물가지수		106.2	106.7	107.3	106.0	106.0	-0.2	0.0
신선식품지수		109.1	115.1	110.7	104.6	105.2	-3.6	0.6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4. 수출입

[수출입]

○ 7월 충남의 수출은 53억21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7%, 전월대비 5.0% 각각 증가

-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석유화학중간원료의 수출 증가로 전체적인 충남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7월 충남의 수입은 28억15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 전월대비 3.9% 감소

- 충남의 주요 수입품목 중 수입비중이 높은 원유와 석탄, 석유제품, 반도체 등의 주요 품목의 전년동월대비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정밀화학원료는 감소하였음

○ 7월 충남의 무역수지는 25억7백만달러 흑자를 기록

- 전월에 비해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전월(21억38백만불)보다 3억68백만불 흑자 증가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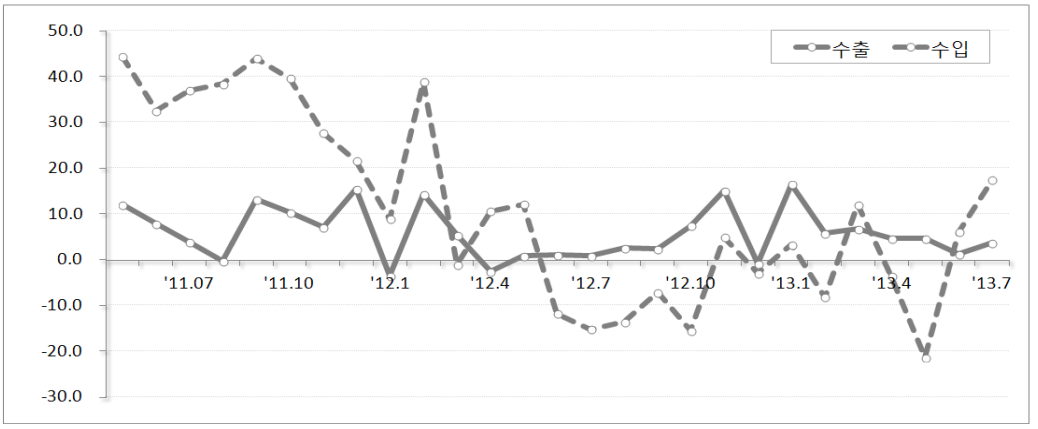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P	7월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4,668	46,206	48,325	46,704	45,839	2.6	-1.9
	수입	41,977	43,777	42,439	40,714	43,299	3.2	6.3
	무역수지	2,691	2,429	5,886	5,990	2,540	-	-
충남	수출	5,134	4,960	5,297	5,067	5,321	3.7	5.0
	수입	2,398	2,861	2,452	2,929	2,815	17.4	-3.9
	무역수지	2,736	2,099	2,846	2,138	2,507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전년동월대비, %)



7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1)]	수출액	증감률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출총액	5,321	3.7	5.0	100.0
1	반도체	1,435	24.5	15.0	27.0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10	-22.5	8.9	15.2
3	전자응용기기	530	29.6	-2.5	10.0
4	석유제품	364	-19.9	-21.8	6.8
5	석유화학중간원료	321	80.5	17.9	6.0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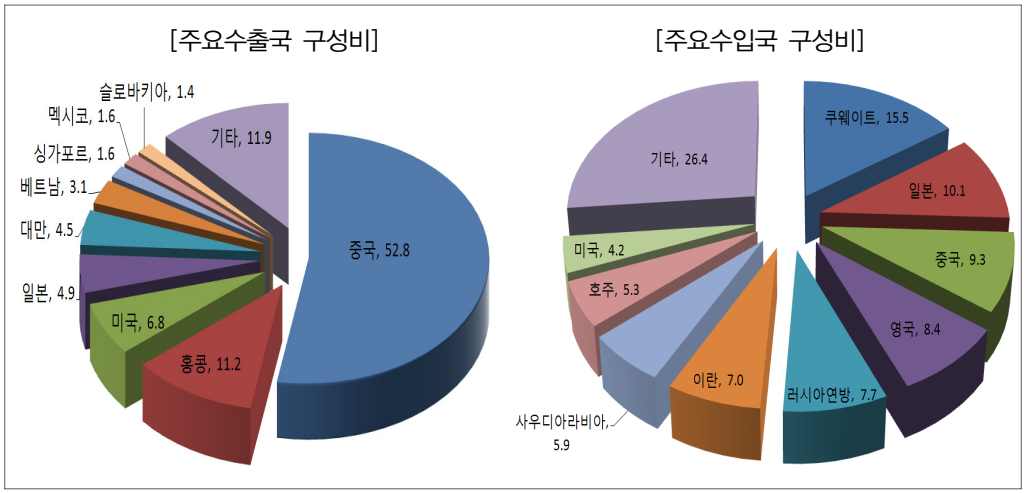
7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1)]	수입액	증감률		수입비중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입총액	2,815	17.4	-3.9	100.0
1	원유	1,290	6.0	-7.1	45.8
2	석탄	238	42.5	62.9	8.5
3	석유제품	203	26.7	-46.4	7.2
4	정밀화학원료	64	-4.5	7.7	2.3
5	반도체	59	84.3	-9.0	2.1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7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 7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823천명으로 전년동월(1,725천명)보다 98천명(+5.7%)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228천명으로 전년동월(1,129천명)보다 99천명(+8.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7.4%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1.9%p 증가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활동인구	전국	25,901	25,928	26,195	26,291	26,301	1.5	0.0
	충남	1,129	1,186	1,215	1,223	1,228	8.7	0.4
	남자	664	706	726	725	735	10.6	1.4
	여자	465	480	490	498	493	6.1	-1.0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62.2	61.7	62.3	62.5	62.4	0.2	-0.1
	충남	65.5	66.1	67.3	67.4	67.4	1.9	0.0
	남자	77.2	78.5	80.2	79.6	80.3	3.1	0.7
	여자	53.8	53.6	54.4	55.1	54.4	0.6	-0.7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 전월 증감을 나타냄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취업자]

○ 7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19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1%, 전월대비 0.7% 증가하여 지역의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충남의 청년층 취업자는 191천명, 고령층 취업자는 347천명으로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1천명(+11.8%), 고령층 취업자 32천명(+10.2%) 증가

○ 도소매 ·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농림어업 198천명(+5.1%), 광공업 247천명(+16.3%), 건설업 81천명(+22.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60천명(+8.6%)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10천명(-1.3%)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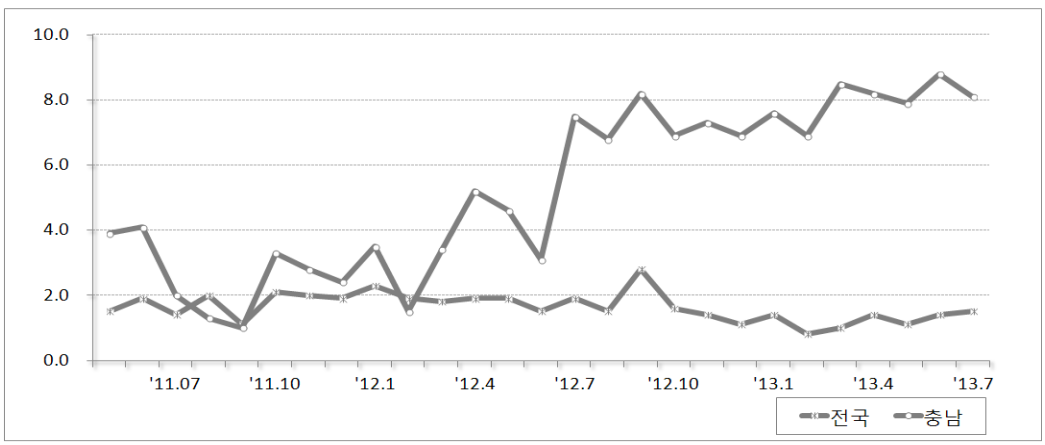
연령별 · 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합계	전국	25,106	25,103	25,398	25,478	25,473	1.5	0.0
	충남	1,104	1,157	1,180	1,186	1,194	8.1	0.7
청년층 (15~29세)	전국	3,998	3,724	3,826	3,822	3,897	-2.5	2.0
	충남	170	182	187	188	191	11.8	1.5
고령층 (55세이상)	전국	5,527	5,738	5,899	5,924	5,922	7.1	-0.0
	충남	315	327	344	345	347	10.2	0.6
	55~59세	99	104	107	107	109	10.8	2.0
	60세이상	216	223	237	238	238	10.1	-0.1
산업별	농림어업	188	182	197	200	198	5.1	-0.9
	광공업	212	256	253	247	247	16.3	-0.1
	건설업	67	83	82	83	81	22.4	-1.8
	도소매 음식숙박업	213	191	200	205	210	-1.3	2.4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	331	350	354	359	360	8.6	0.1
	전기 · 운수 · 통신금융업	94	96	94	93	99	4.9	6.0

취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7월 충남의 실업자는 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1%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6%p, 전월대비 0.2%p 하락

6. 금 융

[수신]

○ 6월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9조 473억원, 비은행기관 30조 2,674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9조 3,147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정기예금이 수신금리 하락세와 지자체 및 법인의 자금인출 등으로 큰 폭 감소로 전환하면서 증가폭이 축소 [5월 +2,099억원 → 6월 -1,905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의 반기말 실적평가에 다른 수신확대 노력, 월말 휴일에 따른 세금납부의 익월 이연, 신탁계정으로 자금융이 늘어나면서 확대 [5월 +379억원 → 6월 +1,889억원]
- 총 수신증감액 : 5월 +2,478억원 → 6월 -1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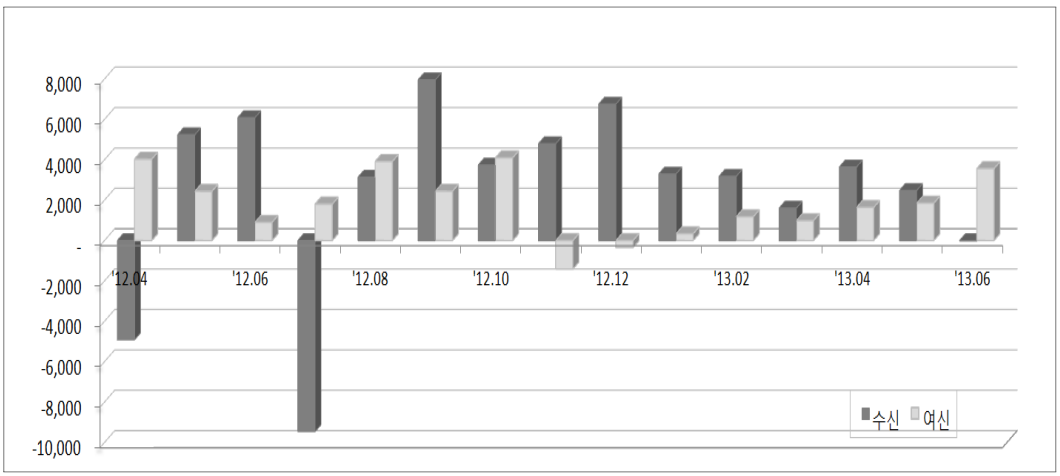
[여신]

○ 6월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5억 6,242억원, 비은행기관 15조 7,639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41조 3,881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중소기업대출이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지속, 주택거래 급증 등으로 주택대출이 늘어나면서 확대 [5월 +1,833억원 → 6월 +2,732억원]
- 비은행기관 : 저축은행은 감소하였으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거나 증가로 전환 [5월 +19억원 → 6월 +829억원]
- 총 여신증감액 : 5월 +1,852억원 → 6월 +3,561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7월 충남의 부도율은 0.73%로 전월대비 0.69%p 상승

- 지역별로는 천안 0.53%, 공주 0.07%, 홍성 0.00%, 아산 4.22%, 당진 0.00%, 서산 0.03%의 부도율을 나타냄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연중	7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충남	0.38	0.21	0.11	0.12	0.04	0.73	0.69	0.52
천안	0.47	0.09	0.07	0.16	0.01	0.53	0.52	0.44
공주	0.41	1.79	1.12	0.30	0.02	0.07	0.05	-1.72
홍성	0.09	0.54	0.11	-	-	0.00	0.00	-0.54
아산	0.35	0.43	0.08	0.21	0.28	4.22	3.94	3.79
당진	1.49	0.30	0.09	-	0.06	0.00	-0.06	-0.30
서산	0.01	0.01	-	-	-	0.03	0.03	0.02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7월중 부도금액은 79억 1천만원으로 전월보다 75억 3천만원 증가

- 제 조 업 : 6월 3천만원 → 7월 61억 5천만원
- 건 설 업 : 6월 3억원 → 7월 13억 6천만원
- 서비스업 : 7월 3억 4천만원

○ 7월중 부도업체수는 5개로 전월보다 4개 업체 증가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부도금액	제조업	12.8	7.3	10.4	0.3	61.5	48.7	61.2
	건설업	8	2.0	-	3.0	13.6	5.6	10.6
	서비스업	4	3.5	0.8	-	3.4	-0.6	-
	기 타	0.6	1.0	1.6	0.5	3.4	2.8	2.9
	합 계	25.4	13.8	12.8	3.8	79.1	53.7	75.3
부도업체수	제조업	1	1	1	1	4	3	3
	건설업	-	-	-	-	1	1	-
	서비스업	-	-	1	-	-	-	-
	기 타	-	-	-	-	-	-	-
	합 계	1	1	2	1	5	4	4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7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282개로 전월(215개)보다 67개 증가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7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608,787㎡로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 전월대비 23.3% 감소

- 7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30.9%), 공업용(21.6%), 상업용(19.0%)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528,696	767,159	874,153	793,231	608,787	15.1	-23.3
주거용	197,947	300,703	196,204	347,337	188,108	-5.0	-45.8
상업용	132,482	173,888	208,305	133,312	115,854	-12.6	-13.1
농수산용	17,033	35,234	47,528	20,263	47,198	177.1	132.9
공업용	93,663	143,604	129,979	136,989	131,313	40.2	-4.1
기타	87,571	113,730	292,137	155,330	126,314	44.2	-18.7

자료 : 건축허가 현황,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7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477,506㎡로 전년동월대비 11.8%, 전월대비 1.3% 각각 증가

- 7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31.5%), 주거용(25.7%), 상업용(20.3%)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427,285	106,960	565,109	471,464	477,506	11.8	1.3
주거용	107,001	4,227	140,495	189,983	122,745	14.7	-35.4
상업용	82,105	8,981	168,805	175,758	97,080	18.2	-44.8
농수산용	67,075	13,616	43,802	34,076	44,721	-33.3	31.2
공업용	112,518	55,627	154,099	41,786	150,318	33.6	259.7
기타	58,586	24,509	57,908	29,861	62,642	6.9	109.8

자료 : 건축착공 현황,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7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8로 전년동월대비 4.0%, 전월대비 0.2%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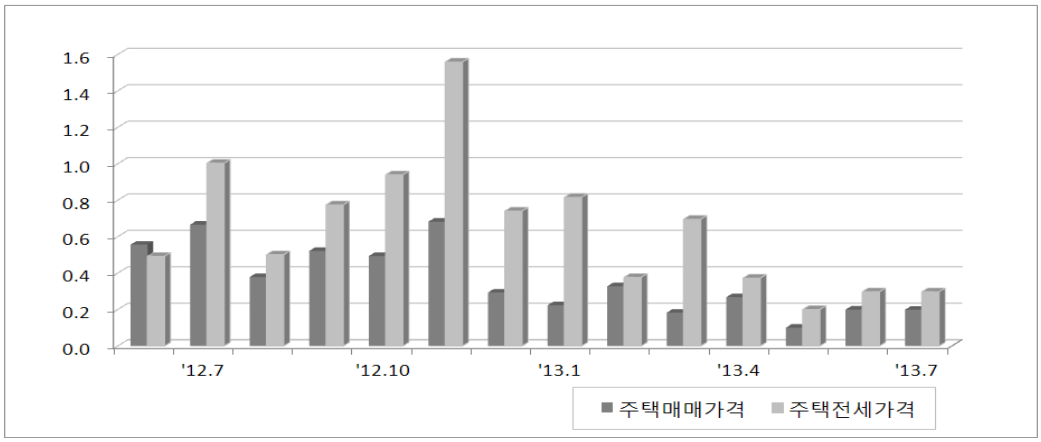
- 천안은 외곽지역의 기업체공장 근로자 수요 및 세종시 인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하였고, 아산 역시 아산테크노밸리 개발 및 아산-당진 항만개발, 삼성전자공장 확장 등의 개발호재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됨
- 매매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동남구(+0.62%)와 아산(+0.16%)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임

○ 7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1.8로 전년동월대비 7.8%,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

- 천안시는 인근산업단지의 출퇴근 수요 및 세종시 인근 주거수요 등의 증가 지속과 아산, 당진지역의 개발 호재 등으로 전세매물이 부족 현상은 여전함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동남구(+0.34%), 아산(+0.52%) 지역이며, 대체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상승한 가운데 아파트가 강세를 보임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토지거래]

○ 7월 충남의 토지거래는 11,20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전월대비 23.4% 각각 감소

- 토지거래 면적은 13,264천㎡로 전년동월대비 9.8%, 전월대비 5.7% 각각 증가

토지거래

(단위 : 건, 천㎡,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필지	12,009	13,367	13,369	14,625	11,204	-6.7	-23.4
면적	12,085	17,795	15,637	12,554	13,264	9.8	5.7

자료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국토교통부.

해외 경제 동향(요약)

-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불안 등 우려 요인이 상존
- 특히,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추가 구제금융 가능성 등 유로존의 하방 위험요인은 지속

미국

- 미국 경제는 '13. 2/4분기 GDP성장률(전기비연율)이 1.7%로 전분기(1.1%)보다 증가
- 산업생산 증가하고 기업경기전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물가와 실업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

중국

- 중국 경제는 '13. 2/4분기 GDP성장률이 7.5%로 전분기(7.7%)보다 소폭 둔화
- 최근 소비는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의 핫머니 규제, 해외수요부진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여 성장세 둔화의 주요요 인으로 작용, 4월 이후 수출 증가세 큰 폭으로 감소

일본

- 일본 경제는 '13. 1/4분기 GDP성장률이 1.0%로 전분기(0.3%)보다 증가
- 수출은 2월 증가세 반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던 물가가 6월 증가세로 전환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13. 1/4분기 GDP성장률이 -0.3%로 전분기(-0.6%)보다 증가
-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긴축으로 인한 역내 수요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
-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가능성 등 EU 차원의 정책대응 강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유로존의 하방 리스크 요인은 상존

1. 미 국

○ 미국 경제는 2013년 2/4분기 GDP성장률(속보치) 1.7%(전기비연율)를 나타냄

○ 6월 미국의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

- 산업생산 증가세가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 기업경기전망을 나타내는 ISM제조업지수는 '11.4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

* ISM제조업지수 :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 한 것.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8%, 생산자물가는 2.5% 각각 증가

○ 실업률은 7.6%를 나타내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이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는 등 고용 회복세가 둔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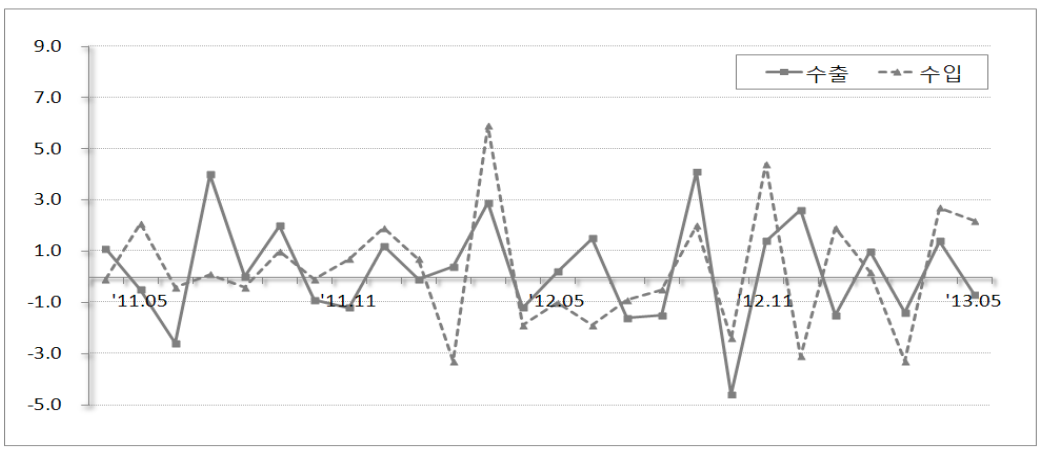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구분		2012년	2013년[P]				
		연간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3.6	0.7	0.2	−0.4	0.0	0.3
소매판매		5.0	1.1	−0.3	0.2	0.5	0.4
물가[1]	생산자[2]	1.9	1.7	1.1	0.6	1.7	2.5
	소비자	2.1	2.0	1.5	1.1	1.4	1.8
무역	수 출	4.5	0.3	−1.4	1.4	−0.7	−
	수 입	2.8	0.7	−4.5	2.7	2.2	−
실업률[3]		8.1	7.7	7.6	7.5	7.6	7.6
주가지수[4]		13,104.1	14,054.5	14,578.5	14,839.8	15,115.6	14,909.6

주 : 1) 전년동월대비 2) 최종재 기준 3)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8), 기획재정부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2. 중 국

○ 중국 경제는 2013년 2/4분기 GDP성장률 7.5%(전년동기대비)를 나타냄

- 최근 소비의 경우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中정부의 핫머니 규제, 해외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여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6월 산업생산은 8.9%, 소매판매는 13.3%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수입은 0.7% 각각 감소

- 2013년 들어 수출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4월 이후 증가세 대폭 감소, 수입도 최근 하락세 반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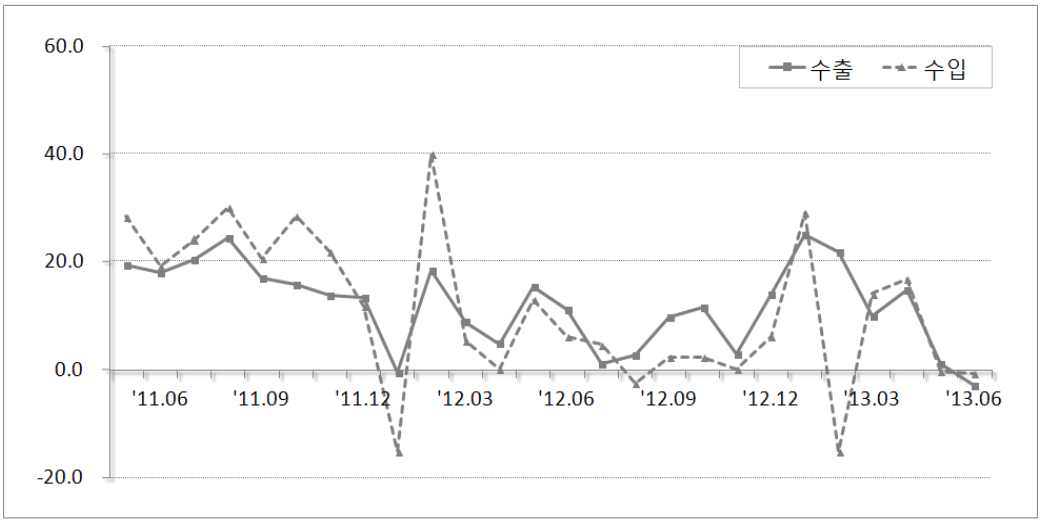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구분		2012년	2013년P				
		연간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10.0	9.9	8.9	9.3	9.2	8.9
소매판매		14.3	12.3	12.6	12.8	12.9	13.3
물가	생산자	-1.7	-1.6	-1.9	-2.6	-2.9	-2.7
	소비자	2.6	3.2	2.1	2.4	2.1	2.7
무역	수 출	7.9	21.8	10.0	14.6	1.0	-3.1
	수 입	4.3	-15.2	14.1	16.8	-0.3	-0.7
주가지수[1]		2,265.90	2,365.59	2,236.62	2,177.91	2,300.60	1,979.21

주 : 1)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8), 기획재정부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3. 일 본

○ 일본 경제는 2013년 1/4분기 GDP성장률 1.0%(전기대비)를 나타냄

○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4%, 수입은 11.8% 각각 증가

- 수출은 2월 증가세 반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 역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6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3.3% 감소, 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 생산자물가 1.2% 각각 상승

- 일본의 물가는 201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6월 증가세로 전환

○ 실업률은 3.9%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0.2%p 상승하였음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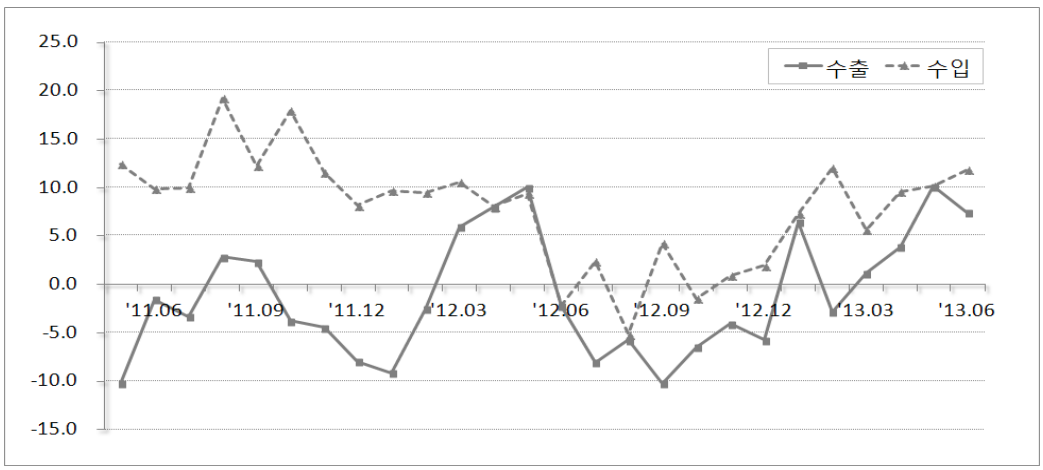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구분		2012년	2013년P				
		연간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1]		-0.3	0.9	0.1	0.9	1.9	-3.3
소매판매[1]		1.8	1.7	-1.5	0.6	1.5	-
물가	생산자[2]	-0.8	-0.1	-0.5	0.1	0.6	1.2
	소비자[3]	0.0	-0.7	-0.9	-0.7	-0.3	0.2
무역	수 출	-2.8	-2.9	1.1	3.8	10.1	7.4
	수 입	3.8	12.0	5.6	9.5	10.1	11.8
실업률[4]		4.4	4.3	4.1	4.1	4.1	3.9
주가지수[5]		10,395	11,559	12,398	13,861	13,775	13,677

주 : 1) 전월대비, 광공업, 2005=100 2) 2010=100 3) 2005=100 4)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5)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8), 기획재정부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4.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2013년 1/4분기 GDP성장률 −0.3%(전기대비)를 나타냄

○ 5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0% 각각 감소

- 감소세를 나타냈던 산업생산이 5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가 '12.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50)를 상회하고 있음

○ 5월 수출은 전월대비 −2.3%, 수입은 2.2% 각각 감소

○ 5월 실업률은 12.2%를 나타내며 전월과 보합

- 실업률이 '11.5월부터 매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음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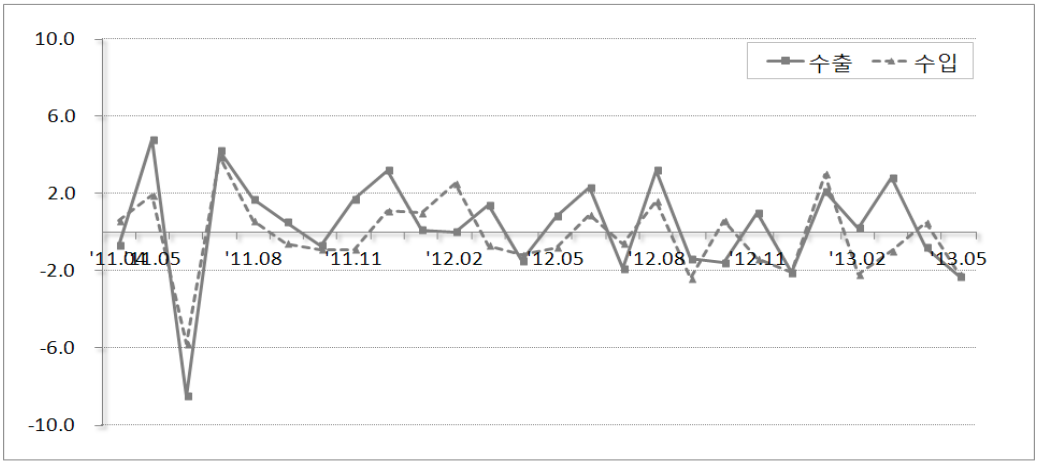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P				
		연간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1]		−2.4	0.3	0.9	0.4	−0.3	−
소매판매		−1.9	−0.3	−0.2	−0.5	1.0	−
물가[2]	생산자	2.9	1.3	0.6	−0.2	−0.1	−
	소비자	2.5	1.8	1.7	1.2	1.4	1.6
무역	수 출	7.1	0.1	2.6	−0.8	−2.3	−
	수 입	1.6	−2.1	−1.2	0.5	−2.2	−
실업률[3]		11.4	12.1	12.1	12.1	12.2	−
주가지수[4]		2,635.9	2,633.6	2,624.0	2,712.0	2,769.6	2,602.6

주 : 1) 전산업(건설업 제외) 2) 전년동월대비,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기준
3) ILO 기준, 계절변동 조정후 4)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5), 기획재정부

유로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3. 8. 20] 외투단지 '충남형 창조경제 실현' 앞장

- 직접고용 5236명·31억9000만불 수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 충남도는 외국의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5236명과 수출 31억9000만불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나 충남형 창조경제 실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도는 지난 1994년 천안 백석단지와 2004년 아산 인주단지 등 외국인 투자단지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말까지 ▲FDI(외국인직접투자) 4억3000만불 ▲총생산 8조 245억원 ▲수출 31억9000만불 ▲직접고용 5236명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밝힘
-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천안 제5산업단지(33만6208㎡)를 외국인투자단지로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 강소기업과 삼성반도체 등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 특히 천안제5산단 외투단지는 최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일본 F사가 88억원(FDI 500만불)을 투자, 고속철도 등에 쓰이는 베어링리테이너 부품을 올해 10월부터 생산 예정
- 현재 천안5산단 외투단지는 면적대비 108%의 투자협약을 확보한 상태로, 도는 외투기업 입주 후 정상가동 시에는 ▲직접고용 2000명 이상 ▲수출 4억불 ▲수입대체 2억불 ▲매출 6억불 등의 경제효과 기대
- 이와 함께 도는 천안 5산단 외투단지 정상가동 시 ▲생산유발효과 5억5000만불 ▲간접생산유발효과 75억불 ▲부가가치창출효과 28억불 ▲연평균 조세수입발생액 518억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도는 앞으로도 도내 외투단지에 첨단디스플레이 제품 등 부품소재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해 약 2억불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외투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착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충남형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갈 방침
- 도 관계자는 "고용효과, 조세수입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돈 버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며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부품·소재분야의 강소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

['13. 8. 15] 도내 대부업체 감소세 뚜렷

-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대비 30개 업체 감소 -

○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290개 업체에서 30곳이

줄어든 260개 업체로 확인

- 이번 실태조사 결과 도내 대부업체 등록업체는 6월말 기준 대부업 196곳, 중개업 24곳, 대부 및 중개 겸업 40곳으로 총 260개로 집계
- 이러한 도내 대부업체의 감소세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과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도는 이번 폐업신고를 한 업체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
- 도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는 건전한 금융질서 형성을 위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힘
- 한편, 대부업 실태조사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실태를 파악해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반기별로 2차례 실시

['13. 8. 15] 충남 기업인大賞 종합대상에 ㈜길산파이프

- 경영대상에 와이엠씨㈜, 기술대상에 장암칼스㈜ 등 선정 -

○ 충남도는 15일 도내 중소기업 중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길산파이프 등 10개 업체를 기업인 대상 수상업체로 선정

- 도에 따르면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충남 기업인대상 수상업체는 기업인 대상 부문에 ▲종합대상=㈜길산파이프(대표 정길영) ▲경영대상=㈜와이엠씨(대표 이윤용) ▲기술대상=장암칼스㈜(대표 구연찬) ▲수출대상=㈜신호인더스트리(대표 이필진) ▲창업대상 = ㈜제이와이(대표 조준영) 등 5개 기업 선정
- 또 우수기업인상에는 ▲코리아휠㈜ (대표 최훈) ▲㈜이림전자 (대표 정재덕) ▲㈜세이크(대표 호진원) ▲㈜이엔이텍(대표 이붕용) ▲㈜천일콘크리트(대표 조회영) 등 5개 기업 선정
- 이번 기업인대상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된 ㈜길산파이프는 스테인레스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특허, ISO,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아파트 건설현장은 물론 KTX 생산라인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임
- 또 경영대상에 선정된 와이엠씨㈜는 배킹 플레이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초정밀가공 및 소재면 휨 교정기술이 뛰어나며 지난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스퍼터링 장비를 개발, 양산체제를 갖춘 유망 기업임

- 기술대상에 선정된 장암칼스㈜는 윤활유 및 특수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특히 '우레아 그리스' 제품은 저소음, 저진동으로 국내 자동차 3사에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임
- 이와 함께 수출대상에 선정된 ㈜신호인더스트리는 PVC SHEET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인쇄선명도, 균일인쇄 등 표면 제어기술, 공정제어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 터키, 러시아, 미국, 호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시장 전망이 밝은 기업임
- 창업대상을 차지한 ㈜제이와이는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생산하는 업체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높낮이 조절 가능한 제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창업 4년차 기업임
- 도 관계자는 "기업인대상 및 우수기업인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도 경영안정자금대출시 우대금리(3%) 적용, 해외시장 판로 지원,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수여하는 중앙단위 포상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며 "이밖에도 충남도를 대표하는 우수기업이라는 홍보효과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기업인 대상 수상업체는 오는 내달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충청남도기업인대상 시상식'에서 시상할 예정

['13. 8. 14] 中윈난성 공상업연합회와 경제 협력 모색

- 경제무역교류단 꾸려 충남 방문…경제교류 등 실무합의서 채택 -

○ 중국 윈난성 공상업연합회 장궁샹(張功祥) 제1부주석 등 경제무역교류방문단이 14일 충남도방문

- 윈난성 공상업연합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안희정 지사의 제1회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참가, 도와 윈난성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도 경제통상실과 공상업연합회간 경제교류협정의향서 체결 이후 처음
- 도는 이날 윈난성 공상업연합회와 양 지역 기업인간 상생 협력과 경제무역 발전을 위한 실현 방안 협의
- 또 ▲경제 및 기업인간 교류▲ 각종 교역회, 전시회, 판촉회 등 참가 ▲ 온라인을 이용한 업무 협력 ▲ 경제, 무역, 투자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교류협정 실무합의서 채택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윈난성은 중국 남부지역과 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중심지"라며 "도내 기업들의 무역박람회 참가와 기업인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상호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리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 한편 윈난성 공상업연합회는 윈난성 내 중소기업에 대한 권익보호, 정보 제공, 대출, 시

장개척 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8만8000여명의 기업인 회원 가입

['13. 8. 8] 현대위아 서산에 첨단부품 공장 짓는다

- 2019년까지 370억원 투입 연간 300억원 수입대체효과 기대 -

○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대표 정명철)가 서산지역에 국내최대 자동차산업 전문 단지 구축

- 충남도는 8일 서산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위아와 일본 IHI사간 합작법인인 '현대위아 IHI 터보 주식회사' 서산공장 기공식
- 이번에 건립되는 현대위아 IHI 터보㈜ 서산공장은 오는 2019년까지 총 3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완공 시 연간 75만대 규모 터보차저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
- 현대위아 IHI 터보 주식회사는 내년까지 1차로 3000평 부지에 150억원을 투입해 생산시설을 갖춘 뒤 오는 2015년 터보차저 양산
- 터보차처는 가솔린 및 디젤엔진에 부가적으로 장착돼 엔진 출력 및 내연기관의 크랭크축에 일어나는 회전력을 향상시켜주는 첨단부품임
- 현대위아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한 일본 IHI사는 매출 15조원, 직원 2만6000명, 계열사 187개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폭스바겐, 벤츠, 도요타, 피아트 등에 터보차저 등 자동차 핵심 부품 공급
- IHI사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터보차저의 핵심기술인 터빈 휠, 샤프트, 콤프 휠 등을 현대위아에 기술 이전
- 현대위아 IHI 합작법인은 터보차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전량 국산화 할 계획으로 오는 2020년 100만대 생산체제가 구축되면 년간 3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도 관계자는 "이번 서산공장 설립으로 충남이 국내 최대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며 "여러 협력업체의 동반이전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현대위아는 지난해 충남도 및 서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12만 7000평 규모에 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000개 육성계획

['13. 8. 6] 취업상담사 '고용률 70% 달성' 앞장 선다

- 6일 도·시군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

○ 충남도는 6일 충남도경제진흥원에서 도와 시·군 취업상담사 3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

- 도 및 시·군 취업상담사, 유관기관과 일자리정책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일자리업무 개선 방안 및 취업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장 상담사례 발표 및 토론 병행 실시
- 이번 합동워크숍은 ▲충남 일자리정책방향 설명(도) ▲일자리현장 상담사례 발표(당진 일자리센터) ▲지역기업 및 각급학교 연계방안 논의(충남교육청) ▲일자리 업무개선 방안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충남일자리종합센터) 등의 순으로 진행
- 도는 이번 합동워크숍이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와 충남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워크숍은 충남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취업상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일선 상담사들의 일자리 업무 개선방안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13. 8. 5] 유망 중소기업 6개사 충남 온다

- 충남 제1호 국내복귀기업 등…2017년까지 635억원 투자 -

○ 국내 복귀 기업(U턴기업)인 ㈜케이에프엠이 예산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 국내 6개 유망 중소기업이 충남 4개 시군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

- 6개 기업의 투자규모는 2017년까지 모두 635억원으로, 신규 511명을 비롯, 총 853명의 고용 창출 기대
- 안희정 지사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이철환 당진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최승우 예산군수, 홍중기 ㈜케이에프엠 대표 등 6개 기업 대표와 투자유치협약 체결
- MOU에 따르면, ㈜케이에프엠과 ㈜삼중, ㈜덕산 등 3개 기업은 2016년까지 247억원을 투자, 예산군 삽교읍 예산일반산업단지와 고덕면 예당일반산업단지에 새롭게 둥지 틈
- PET이형필름과 보호테이프 생산 업체인 ㈜케이에프엠은 예산일반산단 내 9917㎡의 부지에 내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 공장 신설
- ㈜케이에프엠은 특히 충남 제1호 국내 복귀 기업으로, 다른 국내 복귀 기업으로의 파급효과 기대
- 도료용 희석제 생산업체인 ㈜삼중은 예당일반산단 내 2만2120㎡의 부지에 2016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고, 접착제 생산업체인 ㈜덕산도 예당일반산단 내 1만3223㎡의 부지에 내년까지 77억원을 투입, 각각 본사 및 공장 이전

- 또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비클시스템㈜은 2016년까지 210억원을 투자,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일원(2만536㎡)으로 본사와 공장 이전
-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이 업체는 전체 직원 중 60% 가량이 장애인으로, 향후 도내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 기대
- 이와 함께 천연수지 생산업체인 ㈜라톤코리아는 2015년까지 125억원을 투자해 공주시 월미동 월미2농공단지내 1만9650㎡의 부지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티에스피는 2017년까지 53억원을 투자해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 일원 1만7066㎡의 부지에 각각 본사와 공장을 이전·설립
- 각 기업들은 특히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약속
- 도는 이번에 MOU를 체결한 6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향후 5년간 6042억원의 생산유발과 2051명의 고용창출, 152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4418억원의 생산액과 893억원의 부가가치, 420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이날 협약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이번 협약은 서북부권 중심에서 서남부 및 내륙권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민선5기 기업유치 정책의 성과”라며 “각 기업들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안 지사는 또 “도는 시·군과 협력해 각 기업들이 충남에 정착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임

['13. 7. 26] “여름방학 에너지절약 절전노트로 완성”

- 道 초·중학교 여름방학과제로 절전노트 6만부 제작·배포’ -

○ 충남도는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을 통한 습관화 유도를 위해 초·중학교의 여름방학 과제물로 전기절약을 위한 ‘절전노트’를 제작·배포

- 도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되는 절전노트는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탐구활동을 통해 에너지절약 습관화를 유도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가정에서 학생 스스로 전기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도내 총 학교의 약 64%인 399개 학교에 6만부를 제작·배포
- 절전노트의 내용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에너지를 이해하도록 ▲에너지의 중요성과 전력위기 등 에너지에 대한 이해 ▲월별 전기사용량 체크 및 고효율 전기제품 알아보기 ▲전기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절약실천점수 계산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및 에너지절약 퀴즈 등으로 구성

- 절전노트 내용 기획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담당했으며, 과제물 채택 및 신청학생의 수요 파악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원 받음
- 오세현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에 배포한 절전노트로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가정과 학교에서 절전실천의 절전지킴이가 될 것”이라면서 “개학 후 우수 과제물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와 시상을 실시해 전기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도는 이번 ‘절전노트’ 배포와 함께 올해 159개 학교 1만78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절약의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기교육 실시
-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시책인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을 운영해 그동안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605개 학교 7만9770명의 학생에게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실시

['13. 7. 26] 상반기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사상 최대'

- 1~6월 도내 수출액 312억2900만 달러…전년대비 6.4% 증가 -

- 전국은 0.6% 증가 그쳐…무역수지 흑자 141억 달러 전국 2위 -

○ 충남도 내 상반기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무역수지 흑자액도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국 2위 유지

-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1~6월 도내 총 수출액은 312억2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3억3700만 달러에 비해 6.4%(18억9200만 달러) 증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같은 기간 전국 수출액은 2766억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749억7600만 달러에 비해 0.6%(16억7100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
- 또 도내 수입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유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상반기 175억3700만 달러보다 2.5%(4억4100만 달러) 감소한 170억9600만 달러로 집계
- 이에 따라 도내 무역수지 흑자액은 지난해 118억 달러보다 19.8%(23억3300만 달러) 늘어난 141억3300만 달러로 전국 2위 유지
- 올 상반기 수출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로 289.0%를 기록했으며, 석유화학중간원료(97.2%)와 전자응용기기(27.7%), 자동차 부품(15.6%) 등이 뒤를 이음
- 반면 엔저 현상에 따라 석유제품이 11.1% 감소하고, 주요국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자동차 수출액도 10.8%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도 2.2%

감소

- 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은 ▲반도체가 77억5100만 달러 24.8%로 1위를 기록했고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57억 1600만 달러 18.3% ▲전자응용기기 26억 7200만 달러 8.6% ▲석유제품 25억2400만 달러 8.1% ▲석유화학중간원료 17억8900만 달러 5.7% ▲자동차부품 12억2600만 달러 3.9% ▲컴퓨터 12억1600만 달러 3.8% 등의 순
- 국가별로는 ▲중국이 142억7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홍콩 36억3000만 달러 ▲미국 25억4500만 달러 ▲대만 16억7500만 달러 ▲일본 14억6700만 달러 ▲베트남 12억 7000만 달러 등으로 집계
- 이중 중국과 아세안, 미국지역은 수출이 증가했으나, 일본과 홍콩, EU 시장은 수출이 감소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하반기에도 엔저 현상 지속으로 해외시장에서 일본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등 세계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상반기보다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며 "특히 최근 발효된 한·터키 FTA 등을 활용,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면 올해 수출 목표(630억 달러)는 무난히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도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10월 말 홍콩에서 도내 유망 수출기업 3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충남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

['13. 7. 24] 도내 외투기업 투자환경 만족도 높다

- 생활환경·만족도 조사…89.9% "5년 이내 이전계획 없어" -

○ 충남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규모와 입지비용,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충남도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1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20일까지 생활환경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남
-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도내 외투기업으로부터 만족도가 높아 계속유지·관리해야할 환경으로는 ▲시장 환경 ▲행정서비스 환경 ▲입지 환경 등이 꼽힘
- 이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등 충남의 시장 성장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이용 비용, 충남도의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등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
- 향후 5년 이내 이전계획에 대해 응답업체의 89.9%가 '이전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0.2%만이 '있다'고 응답
- 이전계획의 이유로는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상승 ▲관련 기업이전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시장 축소 등을 꼽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사업아이템

변경 ▲규모협소 ▲외투지분 상실 등이 뒤를 이음

- 2013년도 추가 투자계획에 대해 응답기업의 51%는 '계획 미정'이라고 답했고, '그렇다'와 '아니다'가 각각 24.5%로 조사
-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올해 주요 투자분야는 '신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확대'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투자', 'R&D 투자'가 각각 17.2%로 꼽혀
-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행정규제완화 및 편의성 제고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인프라 확충 ▲조세감면 확대 ▲입지 및 현금지원 확대 순으로 조사
- 반면, 조사에 응한 외투기업은 만족도가 낮아 중점강화 해야할 환경으로 ▲생활환경 ▲조세환경 ▲금융환경 등을 꼽음
- 특히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부항목으로 응답한 ▲의료환경 ▲관리직 및 일반직 인력수급 ▲교육환경 등은 열악한 인프라가 바탕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외국인투자기업 토착화 방안에 반영토록 하고 시군 투자유치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물론 만족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도내 조기정착 및 증액투자를 유인해 나가겠다"고 밝힘
-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 20까지 60일 동안 실시했으며 내용은 4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실시
- 조사는 주로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위주로 실시되었고 현장방문도 같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일반현황(종업원수, 투자국명, 매출액 등 6문항) ▲경영 및 생활만족도 8개 부문(환경별)별 만족도(세부 문항 45개) ▲투자 및 이전계획(이전계획 및 투자의향 등 7문항) ▲기타(1문항) 건의사항 등

['13. 7. 23] 탕정·영보산단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 23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환경갈등 최소화 기대 -

○ 충남도는 23일 소회의실에서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와 영보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협의회는 산업단지 계획지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에 앞서 평가 항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주민대표를 비롯해 승인기관과 금강유역환경청, 대학교수,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

-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발족한 것으로, 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이번 협의회의 심의대상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는 ㈜탕정테크노파크에서 총사업비 462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에 36만4000㎡규모로 신규로 조성될 예정으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체 등이 들어섬
- 영보일반산업단지는 GS에너지㈜와 보령LNG터미널㈜에서 총사업비 4005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에 124만8000㎡ 규모로 조성중에 있으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체 등이 입지할 계획
- 이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29일부터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
- 협의회 위원장인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시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협의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주요 민간 기관 · 단체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차세대 인터넷 패러다임, M2M
- 저성장기의 경영전략
- 직장인의 행동에 관한 연구
- 2013년 3/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 Is Japan's Trade Deficit Becoming Chronic?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
-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과 육식녀
- Monthly Economic Review(13-08)
-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China Insight 47호 : 중국 휴대폰 업계의 곤경과 활로 모색
- Japan Insight 60호 : 일본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
- 미국 혁신적 연구의 산실, DARPA
- 2013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해외경제포커스(제 2013-34호)
- 국민계정 리뷰(2013년 제2호)
- 세계 비철금속시장의 현황 및 전망
- 가계수지 적자가국의 경제행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
- 물가보고서(2013년 7월)
- 주요 신흥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
-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현황 및 전망
-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GDP)[1]	억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51,605	12,724,595
국민총소득 (GNI)[1]	억원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47,530	12,384,053	12,795,464
1인당 GNI[1]	만원	2,010	2,113	2,175	2,378	2,488	2,559
경제성장률[2]	%	5.1	2.3	0.3	6.3	3.7	2.0
산업구조	–						
농림어업	%	2.9	2.7	2.8	2.6	2.7	2.6
광공업		27.5	28.1	28.0	30.5	31.5	31.3
전기·가스·수도사업		2.2	1.3	1.8	2.0	1.9	2.1
건설업		7.4	7.0	6.9	6.3	5.9	5.8
서비스업 및 기타		60.0	60.8	60.4	58.5	58.0	58.2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3	77.6	74.4	80.3	80.2	78.1
취업자	천명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농림어업	%	7.4	7.2	7.0	6.6	6.4	6.2
광공업		17.2	16.9	16.4	17.0	16.9	16.7
건설업		7.9	7.7	7.3	7.4	7.2	7.2
서비스업 및 기타		67.6	68.3	69.3	69.1	69.5	69.9
실 업 률	%	3.2	3.2	3.6	3.7	3.4	3.2
경상수지		21,770	3,198	32,790	29,394	26,068	43,139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7,129	5,170	37,866	40,082	31,660	38,338
서비스수지		△11,967	△5,734	△6,641	△8,626	△5,850	2,676
본원소득수지		135	4,435	2,277	1,016	2,891	4,886
이전소득수지		△3,527	△674	△712	△3,079	△2,633	△2,761
수출액	억달러	3,715	4,220	3,635	4,664	5,552	5,479
수입액		3,568	4,353	3,231	4,252	5,244	5,196
총저축률	%	30.8	30.5	30.2	32.1	31.6	30.8
민 간 비 중	%	20.2	21.2	23.4	24.7	23.9	23.4
정 부 비 중		10.6	9.3	6.8	7.4	7.7	7.4
총자본형성[3]	십억원	277,729	277,773	240,412	278,359	282,324	277,336
최종소비지출	%	69.1	70.0	70.1	67.8	68.4	69.3
민 간 비 중	%	54.4	54.7	54.1	52.6	53.1	53.5
정 부 비 중		14.7	15.3	16.0	15.2	15.3	15.8
생산자물가상승률	%	1.4	8.6	−0.2	3.8	6.7	0.7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7	2.8	3.0	4.0	2.2

주 : 1) 당해년 가격. 2) 실질성장률. 3) 자본재형태별 (원계열, 실질)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일경제지표 (2013.8.1기준)

금리

(%p)

구 분	'11말	'12말	'13.6말	7.30	7.31	8.1	전일비	'12말비
콜금리(1일)	3.27	2.75	2.49	2.51	2.51	2.53	0.02	△0.22
CD(91일)	3.55	2.89	5.69	2.66	2.66	2.66	0.00	△0.23
국고채(3년)	3.34	2.82	5.88	2.91	2.92	2.92	0.00	0.10
국고채(5년)	3.46	2.97	3.14	3.18	3.20	3.20	0.00	0.23
회사채(3년, AA-)	4.21	3.29	3.31	3.35	3.36	3.35	△0.01	0.06
외국인채권순매수(상장,억원)	412,343	379,835	99,585	△2,978	△738	42,453	43,191	-

※ '11말('11.1.1~12.31), '12말('12.1.1~12.31), '13.6말('13.6.1~6.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주가

구 분	'11말	'12말	'13.6말	7.30	7.31	8.1	전일비(%)	'12말비(%)
KOSPI지수	1,825.74	1,997.05	1,863.32	1,917.05	1,914.03	1,920.74	0.35	△3.82
·거래대금(억원,일평균)	36,321	32,991	43,634	35,338	40,821	35,693	△5,128	-
KOSDAQ지수	500.18	496.32	519.06	546.43	554.31	549.52	△0.86	10.72
외국인 순매수(억원,기간중)	△95,732	176,293	△51,468	907	362	1,307	945	-

※ 기간 중 : '11말('11.1.1~12.31), '12말('12.1.1~12.31), '13.6말(' 13.6.1~6.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환율

구 분	'11말	'12말	'13.6말	7.30	7.31	8.1	전일비(%)	'12말비(%)
₩/U$	1,151.80	1,070.60	1,142.00	1,113.80	1,123.50	1,123.50	0.00	4.94
선물환(NDF,1월물)	1,154.70	1,072.80	1,143.90	1,116.00	1,125.70	1,125.70	0.00	4.93
₩/CNY	182.29	171.80	186.08	181.64	183.25	183.35	0.04	7.30
₩/EUR	1,488.93	1,417.47	1,492.94	1,476.56	1,488.86	1,491.11	0.15	5.20
₩/¥100	1,481.22	1,238.26	1,156.34	1,133.52	1,147.95	1,141.77	△0.54	△7.79
¥/U$	77.76	86.46	98.76	98.26	97.87	98.40	0.54	13.81
U$/EUR	1.2927	1.3240	1.3073	1.3257	1.3252	1.3272	0.15	0.24
CNY/U$	6.3248	6.2304	6.1445	6.1339	6.1305	6.1267	△0.06	△1.66

※ '12년 평균 환율 : (₩/U$) 1,126.8원 (₩/¥100) 1,414.0원 ※ '13년 평균 환율(' 13.1.1~현재): (₩/U$)1,107.5원 (₩/¥100)1,154.1원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11말	'12말	'13.6말	7.30	7.31	8.1	전일비(%)	'12말비(%)
LIBOR(Dollar,3월, %)	0.58	0.31	0.27	0.27	0.28	-	0.01	△0.03
T/NOTE(10년, %)	1.88	1.76	2.49	2.60	2.59	-	△0.01	0.83
DOW	12,218	13,104	14,910	15,521	15,500	-	△0.14	18.28
NIKKEI	8,455	10,395	13,677	13,870	13,668	14,006	2.47	34.73
SANGHAI COMP	2,199	2,269	1,979	1,998	1,994	2,029	1.77	△10.58
외평채가산금리(bp,'14년물)	165	63	80	71	-	-	△2	8
CDS(5년, bp)	161	67	91	85	88	86	△2	19
CRS(1년, %)	2.05	2.22	1.60	1.77	1.74	1.73	△0.01	△0.49

유가 · 곡물 · 원자재

구 분	'11말	'12말	'13.6말	7.30	7.31	8.1	전일비(%)	'12말비(%)
DUBAI ($/배럴)	104.89	107.81	100.38	104.38	104.68	104.29	△0.37	△3.27
WTI 선물 ($/배럴)	98.83	91.82	96.56	104.55	103.08	105.03	1.89	14.39
Brent 선물 ($/배럴)	107.38	111.11	102.16	107.45	106.91	107.70	0.74	△3.07
원당 (센트/파운드)	23.3	19.51	16.92	16.92	16.93	16.97	0.24	△13.02
밀 (센트/부셀)	653	778	649	652	655	664	1.37	△14.62
콩 (센터/부셀)	1,208	1,410	1,565	1,368	1,350	1,374	1.78	△2.52
옥수수 (센트/부셀)	647	698	679	489	496	499	0.71	△28.54
동 ($/톤)	7,570	7,930	6,751	6,861	6,752	6,805	0.78	△14.19
알루미늄 ($/톤)	1,992	2,072	1,731	1,760	1,742	1,732	△0.55	△16.39

※ '12년 평균 유가 : (Dubai) 109.03$, (WTI선물) 94.18$. ※'13년 평균 유가(' 13.1.1~현재): (Dubai) 104.21 (WTI 선물) 95.84$.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지역내총생산(GRDP)[1]	억원	551,484	579,740	651,338	763,538	848,817	–[4]
전국대비 구성비[1]	%	5.66	5.65	6.12	6.51	6.84	–
GRDP 성장률[2]	%	7.1	6.2	5.4	12.0	5.0	–
1인당 GRDP	백만원	27.97	28.82	31.95	36.79	40.34	–
산업구조[3]	–						–
농림어업	%	6.7	6.3	5.7	5.1	4.6	–
광공업		45.6	46.6	50.7	54.5	57.4	–
전기가스수도업		4.4	2.5	3.4	3.8	3.7	–
건설업		8.7	9.3	8.1	7.5	7.0	–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5.3	32.0	29.2	27.3	–
15세이상인구	천명	1,547	1,564	1,588	1,613	1,643	1,717
경제활동인구	천명	1,021	996	991	1,003	1,025	1,080
취업자	천명	998	973	961	974	1,001	1,056
농림어업	%	21.9	19.5	18.8	16.8	16.3	15.1
광공업		17.0	17.4	17.1	19.0	20.4	20.2
건설업		6.6	5.7	5.8	5.6	6.4	6.6
서비스업 및 기타		54.5	57.3	58.3	58.5	57.0	58.1
실업자	천명	23	24	29	29	24	25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68	597	610	618	637
경제활동참가율	%	66.0	63.7	62.4	62.2	62.4	62.9
실업률	%	2.2	2.4	3.0	2.9	2.3	2.3
고용률	%	64.5	62.2	60.5	60.4	60.9	61.5
무역수지	백만달러	21,149	13,380	20,299	29,161	26,314	28,523
수출액	백만달러	47,823	42,936	39,428	54,054	59,954	62,031
수입액		26,674	29,556	19,129	24,893	33,640	33,509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9	2.7	3.0	4.1	2.4

주 : 1) 당해년가격 2) 연쇄지수(2005=100)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4) –는 통계수치발표 이전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천안시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179,708
공주시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25,823
보령시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24,708
아산시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32	213,087
서산시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90,522
논산시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25,239
계룡시[1)]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4,058	4,482
당진시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60,282	72,559
금산군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15,606
연기군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24,822
부여군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15,052
서천군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15,088
청양군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6,737
홍성군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16,679
예산군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16,082	17,518
태안군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15,907
충청남도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763,538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10=100.0, %, p)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10=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10. 06	99.7	0.6	8.0	8.3	100.0	0.2
07	100.5	0.9	8.1	8.7	100.4	0.4
08	101.2	0.7	7.8	8.6	100.6	0.2
09	101.6	0.4	7.1	8.1	100.5	-0.1
10	101.6	0.0	5.9	7.2	100.0	-0.4
11	101.7	0.1	5.0	6.4	99.7	-0.4
12	102.5	0.8	5.7	6.4	100.1	0.4
2011. 01	104.2	1.6	7.9	7.3	101.2	1.2
02	104.9	0.6	8.0	7.1	101.4	0.2
03	105.1	0.2	7.3	6.7	101.2	-0.2
04	104.9	-0.2	5.9	5.9	100.5	-0.6
05	105.4	0.5	5.8	6.0	100.6	0.0
06	106.2	0.8	6.3	6.2	100.9	0.3
07	106.6	0.3	5.8	5.9	100.8	-0.1
08	107.0	0.4	5.7	5.8	100.8	0.0
09	107.4	0.3	5.5	5.5	100.7	-0.1
10	108.1	0.7	5.9	5.8	101.0	0.3
11	108.7	0.5	6.0	5.8	101.1	0.1
12	109.2	0.5	5.8	5.7	101.2	0.1
2012. 01	109.5	0.3	5.3	5.5	101.1	-0.1
02	110.0	0.4	5.3	5.4	101.1	0.0
03	109.9	-0.1	4.4	4.9	100.7	-0.4
04	110.1	0.2	4.1	4.6	100.5	-0.2
05	110.6	0.4	4.1	4.4	100.5	0.0
06	110.6	0.0	3.4	3.9	100.2	-0.3
07	110.8	0.2	3.2	3.7	100.0	-0.2
08	110.9	0.1	2.7	3.3	99.7	-0.3
09	111.5	0.6	3.2	3.5	99.9	0.2
10	111.6	0.1	2.8	3.2	99.7	-0.3
11	112.0	0.3	2.9	3.1	99.6	-0.0
12	112.2	0.1	2.7	2.9	99.4	-0.2
2013. 01	111.7	-0.4	1.6	2.2	99.0	-0.4
02	111.0	-0.6	0.2	1.3	98.3	-0.7
03	111.0	0.0	0.0	1.0	98.0	-0.3
04	112.0	0.8	1.4	1.6	98.7	0.5
05	112.5	0.4	2.0	1.8	98.9	0.1
06	112.9	0.4	2.5	2.0	99.0	0.1

자료 : 2013년 6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2013.8.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체감	전망	체감	전망	체감	전망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1	65.6	94.4	63.1	94.8	67.9	91.0
2012	59.9	83.9	60.8	87.9	58.2	78.7
2012 1/4	48.2	87.2	51.8	85.1	49.8	81.9
2/4	64.7	80.3	64.9	91.1	62.9	75.1
3/4	58.6	78.5	58.7	80.5	53.2	70.9
4/4	68.0	89.9	67.9	94.8	66.7	86.8
2013 1/4	51.3	92.6	48.4	95.2	54.6	91.2
2013 2/4	60.7	91.6	61.8	96.5	63.4	90.2
2011. 07	63.1	88.8	46.7	88.0	60.6	84.8
08	65.6	96.7	58.1	86.5	66.9	92.4
09	85.5	101.9	85.3	108.2	77.9	95.9
10	69.7	102.2	71.2	104.9	72.8	91.7
11	63.5	93.2	65.5	91.9	65.0	86.3
12	59.7	87.3	66.6	85.7	69.5	89.5
2012. 01	54.2	97.8	62.9	97.7	54.4	93.1
02	43.3	61.9	43.8	51.9	46.0	60.9
03	47.0	101.8	48.7	105.7	49.1	91.7
04	67.4	84.3	64.3	97.5	56.7	78.7
05	79.6	83.3	76.4	99.8	68.5	71.5
06	47.1	73.2	54.0	76.1	63.6	75.0
07	50.4	72.0	53.3	68.1	50.7	69.2
08	52.9	64.9	46.2	64.0	46.0	57.2
09	72.4	98.5	76.5	109.4	62.9	86.2
10	76.9	102.2	72.7	107.5	71.1	94.6
11	82.7	96.4	90.3	101.7	77.0	91.3
12	44.5	71.0	40.6	75.1	51.9	74.4
2013. 01	41.9	72.0	38.9	66.6	49.8	76.4
02	52.9	104.1	50.9	110.4	59.9	96.4
03	59.1	101.7	55.4	108.6	54.1	100.7
04	58.8	100.8	61.2	105.3	62.4	97.6
05	69.6	96.6	66.9	102.7	68.3	92.4
06	53.6	77.5	57.2	81.4	59.6	80.7
07	49.4	78.6	49.7	72.8	58.3	75.4
08	-	72.5	-	79.4	-	68.7

자료 : 월간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경상판매액)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1	1,450,812	32.5	-	918,307	15.2	-
2012	1,540,187	6.2	-	-	-	-
2012 1/4	378,000	6.5	-0.2	247,840	9.8	11.1
2/4	363,964	3.9	-3.7	230,878	3.7	-6.8
3/4	387,720	5.8	6.5	269,446	9.1	16.7
4/4	410,503	8.4	5.9	-	-	-
2013 1/4	385,588	2.0	-6.1	-	-	-
2/4	380,702	4.6	-1.3	-	-	-
2011. 06	117,625	43.1	-3.0	75,023	18.6	-3.8
07	124,762	36.4	6.1	84,338	17.1	12.4
08	114,166	30.9	-8.5	79,742	14.2	-5.4
09	127,612	29.2	11.8	82,798	8.1	3.8
10	124,339	42.8	-2.6	72,739	18.2	-12.1
11	114,856	41.3	-7.6	68,295	11.6	-6.1
12	139,613	11.9	21.6	82,044	14.1	20.1
2012. 01	136,752	2.1	-2.0	90,781	6.1	10.6
02	116,618	7.2	-14.7	76,802	9.8	-15.4
03	124,630	10.9	6.9	80,257	14.4	4.5
04	119,552	7.2	-4.1	75,968	9.1	-5.3
05	127,364	5.1	6.5	81,100	4.0	6.8
06	117,048	-0.5	8.1	73,810	-1.6	-9.0
07	128,184	2.7	9.5	87,973	4.3	19.2
08	123,597	8.3	-3.6	88,229	10.6	0.3
09	135,939	6.5	10.0	93,244	12.6	5.7
10	127,452	3.3	-6.2	-	-	-
11	133,475	16.2	4.7	-	-	-
12	149,576	7.1	12.1	-	-	-
2013. 01	121,870	-10.9	-18.5	-	-	-
02	128,268	10.0	5.2	-	-	-
03	135,450	8.7	5.6	-	-	-
04	120,308	0.6	-11.2	-	-	-
05	130,684	2.6	8.6	-	-	-
06	129,810	10.9	-0.7	-	-	-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10.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 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0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0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0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0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06	883,775	27,788	−573	635,705	49,457	198,684	2,929
07	849,209	−10,028	−34,566	609,179	47,178	190,024	2,828
08	848,303	−12,541	−906	608,524	47,155	189,786	2,838
09	850,312	−13,200	2,009	610,556	46,946	189,962	2,848
10	852,628	−13,423	2,316	612,698	46,930	190,135	2,865
11	855,322	−12,725	2,694	615,090	46,900	190,447	2,885
12	855,751	−12,937	429	615,770	46,751	190,331	2,899
2013. 01	859,321	−14,698	3,570	618,881	46,739	190,790	2,911
02	861,777	−15,277	2,456	620,903	46,796	191,142	2,936
03	864,711	−14,839	2,934	623,471	46,798	191,486	2,956
04	868,178	−13,738	3,467	626,387	46,884	191,914	2,993
05	870,741	−13,607	2,563	628,480	46,930	192,325	3,006
06	873,672	−13,103	2,931	630,864	46,956	192,837	3,015
07	876,401	27,192	2,729	633,075	47,103	193,183	3,040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

구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10	100.0	3.0	100.0	3.4	100.0	22.6	100.0	2.9	100.0	3.5	100.0	3.0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2	106.6	2.4	106.7	2.0	113.2	6.7	106.6	2.5	105.9	1.6	106.8	2.3
2012 1/4	105.9	2.8	106.3	2.6	110.7	0.4	105.9	2.9	105.6	2.4	106.3	3.0
2/4	106.6	2.8	107.0	2.8	113.5	11.5	106.7	3.0	105.9	1.9	106.8	2.7
3/4	106.8	1.8	106.8	1.3	115.2	3.2	106.8	1.9	105.9	1.0	106.9	1.6
4/4	107.0	2.1	106.8	1.5	113.4	12.5	107.0	2.2	106.2	1.2	107.0	1.6
2013 1/4	107.5	1.5	107.2	0.8	117.7	6.3	107.5	1.5	106.7	1.0	107.7	1.3
2/4	107.2	0.6	106.3	−0.7	110.1	−3.0	107.3	0.5	106.6	0.6	107.5	0.7
2011. 07	104.4	4.5	104.6	4.8	105.8	12.1	104.3	4.3	104.5	4.6	104.8	4.9
08	105.2	4.9	105.8	5.5	116.7	15.1	105.1	4.8	105.1	4.8	105.4	5.0
09	105.0	4.1	105.7	4.4	112.3	−3.5	104.9	3.9	105.0	4.0	105.3	4.5
10	104.7	3.6	105.2	3.6	103.5	−13.1	104.6	3.5	104.7	3.6	105.2	4.0
11	104.7	4.1	105.1	4.6	99.9	−6.8	104.6	4.0	104.9	4.3	105.2	4.5
12	105.0	3.9	105.4	4.2	99.0	−7.4	104.8	3.7	105.1	4.1	105.5	4.4
2012. 01	105.5	3.2	105.9	3.2	106	−3.4	105.5	3.3	105.4	3.1	106.0	3.6
02	106.0	2.7	106.4	2.4	111.1	0.2	105.9	2.7	105.8	2.5	106.4	2.9
03	106.2	2.6	106.7	2.4	115.1	4.1	106.2	2.7	105.7	1.8	106.6	2.6
0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7	2.0	106.7	2.8
05	106.8	3.0	107.2	3.2	116.5	16.3	106.8	3.1	106.2	2.2	106.9	2.8
06	106.7	2.7	107.0	2.7	110.4	11.4	106.8	2.9	105.9	1.7	106.7	2.3
07	106.4	1.9	106.2	1.5	109.1	3.1	106.4	2.0	105.6	1.1	106.5	1.6
08	106.6	1.3	106.5	0.7	113.7	−2.6	106.7	1.5	105.7	0.6	106.7	1.2
09	107.4	2.3	107.7	1.9	122.9	9.4	107.4	2.4	106.5	1.4	107.5	2.1
10	107.2	2.4	107.2	1.9	118.8	14.8	107.3	2.6	106.4	1.6	107.2	1.9
11	106.8	2.0	106.5	1.3	109.5	9.6	106.8	2.1	106.0	1.0	106.9	1.6
12	106.9	1.8	106.6	1.1	112.0	13.1	107.0	2.1	106.1	1.0	107.0	1.4
2013. 01	107.5	1.9	107.2	1.2	117.3	10.7	107.6	2.0	106.6	1.1	107.6	1.5
02	107.7	1.6	107.5	1.0	119.0	7.1	107.8	1.8	106.8	0.9	107.9	1.4
03	107.4	1.1	106.9	0.2	116.7	1.4	107.5	1.2	106.7	0.9	107.6	0.9
04	107.3	0.8	106.7	−0.2	115.1	1.4	107.3	0.8	106.6	0.9	107.5	0.7
05	107.3	0.5	107.3	0.0	110.7	−5.0	107.3	0.5	106.6	0.4	107.6	0.7
06	107.1	0.4	106.0	−0.9	104.6	−5.3	107.2	0.4	106.5	0.6	107.4	0.7
07	107.3	0.8	106.0	−0.2	105.2	−3.6	107.3	0.8	106.7	1.0	107.6	1.0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2	62,031	3.5	–	33,509	-0.4	–	28,522
2012. 1/4	14,526	5.1	-8.3	8,686	13.9	2.2	5,840
2/4	14,811	-0.2	2.0	8,851	2.9	1.9	5,960
3/4	15,746	1.9	6.3	7,869	-11.8	-11.1	7,877
4/4	16,949	7.0	7.6	8,103	-4.6	3.0	8,846
2013. 1/4	15,904	9.5	-6.1	8,854	1.9	9.4	7,050
2/4	15,324	3.5	-3.6	8,244	-6.9	-6.9	7,080
2011. 08	4,925	-0.2	-3.2	2,867	38.4	1.5	2,058
09	5,435	13.2	10.4	3,225	44.0	12.5	2,210
10	5,510	10.3	1.4	2,834	39.6	-12.1	2,676
11	4,996	7.2	-9.3	2,741	27.7	-3.3	2,255
12	5,328	15.4	6.6	2,922	21.6	6.6	2,406
2012. 01	4,563	-3.6	-14.4	2,782	8.9	-4.8	1,781
02	4,828	14.4	5.8	3,100	38.8	11.4	1,728
03	5,135	5.4	6.4	2,804	-1.1	-9.5	2,331
04	4,741	-2.6	-7.7	2,972	10.6	6.0	1,769
05	5,061	0.8	6.7	3,116	12.1	4.8	1,945
06	5,008	1.0	-1.0	2,763	-11.8	-11.3	2,245
07	5,134	0.9	2.5	2,398	-15.2	-13.2	2,736
08	5,048	2.5	-1.7	2,477	-13.6	3.3	2,571
09	5,564	2.4	10.2	2,994	-7.2	20.9	2,570
10	5,918	7.4	6.4	2,395	-15.5	-20.0	3,523
11	5,743	15.0	-3.0	2,874	4.9	20.0	2,869
12	5,287	-0.8	-7.9	2,833	-3.0	-1.4	2,454
2013. 01	5,317	16.5	0.6	2,874	3.3	1.4	2,443
02	5,101	5.7	-4.1	2,845	-8.2	-1.0	2,255
03	5,487	6.8	7.6	3,140	12.0	10.4	2,346
04	4,960	4.6	-9.6	2,861	-3.7	-8.9	2,099
05	5,297	4.7	6.8	2,452	-21.3	-14.3	2,846
06	5,067	1.2	-4.3	2,929	6.0	19.5	2,138
07	5,321	3.7	5.0	2,815	17.4	-3.9	2,507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10	1,003	1.2	591	412	62.2	-0.2	74.1	50.5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2	1,080	5.4	641	439	62.9	0.5	75.0	50.9
2012. 1/4	991	2.9	595	396	59.0	-0.1	71.5	46.8
2/4	1,110	4.6	653	457	65.1	0.3	77.0	53.3
3/4	1,120	7.3	664	456	64.7	1.3	76.9	52.5
4/4	1,100	6.7	652	448	62.8	0.6	74.6	51.0
2013. 1/4	1,070	8.0	648	422	60.2	1.2	72.9	47.5
2/4	1,208	8.9	719	489	66.9	1.8	79.4	54.4
2011. 08	1,043	1.1	619	424	63.3	-0.5	75.9	50.9
09	1,038	0.0	611	427	62.9	-1.3	74.9	51.2
10	1,066	3.1	624	442	64.5	0.7	76.3	52.8
11	1,041	2.0	615	425	62.8	-0.1	75.1	50.8
12	985	1.8	596	389	59.3	-0.2	72.4	46.4
2012. 01	959	3.8	572	386	57.4	0.7	69.1	45.8
02	975	2.1	592	383	58.0	-0.6	71.1	45.2
03	1,041	2.8	622	419	61.7	-0.3	74.2	49.3
04	1,097	5.3	648	448	64.6	0.9	76.9	52.5
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06	1,119	4.0	657	463	65.3	-0.3	76.9	53.8
07	1,129	7.4	664	465	65.5	1.6	77.2	53.8
08	1,112	6.6	664	448	64.2	0.9	76.9	51.5
09	1,119	7.7	663	455	64.4	1.5	76.5	52.3
10	1,128	5.8	664	464	64.7	0.2	76.3	53.1
11	1,117	7.4	656	461	63.8	1.0	75.2	52.5
12	1,054	7.0	636	418	59.9	0.6	72.4	47.5
2013. 01	1,030	7.4	624	405	58.2	0.8	70.7	45.8
02	1,047	7.4	630	417	58.9	0.9	70.9	46.9
03	1,135	9.1	690	446	63.5	1.8	77.1	49.9
04	1,186	8.2	706	480	66.1	1.5	78.5	53.6
05	1,215	9.2	726	490	67.3	2.0	80.2	54.4
06	1,223	9.2	725	498	67.4	3.2	79.6	55.1
07	1228	8.7	735	493	67.4	1.9	80.3	54.4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전년 동월(기)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10	974	1.3	9	140	215	252	115	84	58	102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2	1,056	5.5	11	151	219	264	125	96	61	128
2012. 1/4	961	2.8	10	140	213	251	120	89	56	83
2/4	1,084	4.3	12	149	222	266	126	99	64	146
3/4	1,097	7.5	13	154	222	270	126	99	63	150
4/4	1,079	7.0	10	160	221	268	129	99	61	132
2013. 1/4	1,035	7.7	10	158	223	264	129	96	56	100
2/4	1,174	8.3	12	174	236	277	137	106	70	163
2011. 08	1,019	1.3	13	134	209	261	122	92	67	122
09	1,016	1.0	7	133	216	261	119	93	68	119
10	1,038	3.3	7	135	218	267	123	93	69	128
11	1,023	2.8	8	137	222	264	122	92	64	115
12	965	2.4	10	136	216	259	116	92	56	80
2012. 01	930	3.5	12	133	210	251	120	85	51	68
02	938	1.5	10	140	213	247	116	85	56	72
03	1,015	3.4	8	147	216	257	124	95	60	109
04	1,069	5.2	14	145	222	263	125	100	62	139
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06	1,090	3.1	11	151	221	267	126	98	65	150
07	1,104	7.5	15	155	221	272	126	99	64	152
08	1,088	6.8	14	151	223	267	125	97	62	149
09	1,099	8.2	11	156	221	270	128	100	64	150
10	1,110	6.9	11	158	219	273	131	103	65	151
11	1,097	7.3	9	161	222	266	129	101	62	148
12	1,031	6.9	11	161	221	264	126	95	57	97
2013. 01	1,001	7.6	12	158	216	261	125	94	53	82
02	1,003	6.9	9	150	222	262	127	94	53	87
03	1,101	8.5	11	165	230	268	136	101	60	130
04	1,157	8.2	11	172	234	276	137	104	69	154
05	1,180	7.9	13	175	235	276	137	107	70	167
06	1,186	8.8	12	175	239	279	135	107	71	168
07	1,194	8.1	16	175	242	280	134	109	73	165

자료 :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취업자,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전년 동월(기)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금융
2010	974	1.3	164	185	55	177	296	99
2011	1,001	2.8	163	204	64	177	297	97
2012	1,056	5.5	159	213	69	199	322	93
2012. 1/4	961	2.8	99	208	65	191	300	98
2/4	1,084	4.3	183	206	70	197	330	98
3/4	1,097	7.5	190	214	69	205	327	91
4/4	1,079	7.0	163	223	73	203	329	88
2013. 1/4	1,035	7.7	113	238	71	197	328	89
2/4	1,174	8.3	193	252	83	199	354	94
2011. 08	1,019	1.3	181	205	66	180	295	92
09	1,016	1.0	180	207	67	171	297	94
10	1,038	3.3	189	213	70	180	295	92
11	1,023	2.8	162	217	70	187	294	93
12	965	2.4	105	214	72	189	290	95
2012. 01	930	3.5	80	211	67	190	287	97
02	938	1.5	82	208	63	191	296	98
03	1,015	3.4	136	205	67	191	319	98
04	1,069	5.2	176	203	70	192	332	96
05	1,094	4.6	188	209	70	199	330	99
06	1,090	3.1	186	205	71	202	329	98
07	1,104	7.5	188	212	67	213	331	94
08	1,088	6.6	188	212	70	209	319	91
09	1,099	8.2	194	219	72	195	332	88
10	1,110	6.9	189	217	75	207	331	90
11	1,097	7.3	185	225	70	204	327	87
12	1,031	6.9	116	228	73	199	330	86
2013. 01	1,001	7.6	94	230	68	205	317	87
02	1,003	6.9	95	233	67	195	324	89
03	1,101	8.5	151	250	77	191	342	90
04	1,157	8.2	182	256	83	191	350	96
05	1,180	7.9	197	253	82	200	354	94
06	1,186	8.8	200	247	83	205	359	93
07	1,194	8.1	198	247	81	210	360	99

자료 :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통계청.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동월(기)차	남자	여자	합계	전년동월(기)비	남자	여자
2010	2.9	-0.1	3.1	2.5	29	-2.4	18	10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2	2.3	0.0	2.2	2.4	25	4.2	14	10
2012. 1/4	3.0	0.0	3.0	3.1	30	5.6	18	12
2/4	2.3	0.4	2.1	2.5	25	22.8	14	12
3/4	2.0	-0.2	2.0	2.0	23	-3.4	14	9
4/4	1.9	-0.2	1.8	2.0	20	-6.8	12	9
2013. 1/4	3.3	0.3	3.2	3.4	35	17.6	21	14
2/4	2.8	0.5	3.1	2.4	34	33.6	22	12
2011. 08	2.3	-0.1	2.6	1.8	24	-6.0	16	8
09	2.2	-1.0	2.3	2.0	22	-31.9	14	8
10	2.6	-0.1	3.4	1.4	28	-1.8	22	6
11	1.7	-0.7	1.7	1.7	17	-30.5	10	7
12	2.1	-0.5	2.4	1.6	21	-19.5	14	6
2012. 01	2.9	0.3	3.1	2.6	28	16.5	18	10
02	3.8	0.5	4.0	3.5	37	17.6	23	13
03	2.5	-0.5	2.0	3.1	26	-15.0	13	13
04	2.5	0.1	2.3	2.7	27	8.3	15	12
05	1.8	0.1	1.5	2.2	20	8.8	10	10
06	2.6	0.9	2.5	2.7	29	56.2	17	12
07	2.2	-0.1	2.2	2.1	25	3.3	15	10
08	2.1	-0.2	2.2	2.0	24	-0.4	15	9
09	1.7	-0.5	1.6	1.8	19	-14.3	11	8
10	1.6	-1.0	1.4	1.9	18	-33.9	10	9
11	1.8	0.1	1.7	1.9	20	15.0	11	9
12	2.2	0.1	2.2	2.2	23	11.7	14	9
2013. 01	2.8	-0.1	2.6	3.2	29	1.8	16	13
02	4.2	0.4	3.8	4.8	44	19.6	24	20
03	3.0	0.5	3.4	2.3	34	31.8	23	10
04	2.5	0.0	2.5	2.4	29	7.7	18	12
05	2.9	1.1	3.2	2.5	36	79.3	24	12
06	3.0	0.4	3.5	2.2	37	26.3	25	11
07	2.8	0.6	3.3	2.0	34	36.1	24	10

자료 :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률,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자, 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2010.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09	161,652	290,290	451,942	235,985	159,761	395,746
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11	164,574	294,210	458,784	243,255	162,963	406,218
12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01	168,927	296,961	465,888	245,495	164,497	409,992
02	170,977	296,845	467,822	246,535	164,433	410,968
03	177,719	299,136	476,855	247,713	164,775	412,488
04	171,814	300,045	476,855	250,943	165,888	416,831
05	175,074	301,932	477,006	252,995	166,482	419,477
06	177,213	306,227	483,440	253,422	167,002	420,424
07	168,987	306,077	475,064	253,686	168,036	421,722
08	173,207	305,620	478,827	256,291	169,522	425,813
09	167,636	290,970	458,606	245,719	156,259	401,978
10	169,646	293,034	462,680	249,763	156,316	406,079
11	173,265	293,094	467,169	248,952	155,717	404,669
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2013. 01	182,827	299,436	482,263	247,947	156,711	404,658
02	186,423	299,016	485,439	249,281	156,559	405,840
03	186,938	300,107	487,045	250,243	156,586	406,829
04	190,279	300,406	490,685	251,679	156,791	408,470
05	192,378	300,785	493,163	253,511	156,810	410,321
06	190,473	302,674	493,147	256,242	157,639	413,881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10	0.17	0.20	0.33	0.21	0.05	0.05
2011	0.29	0.42	0.24	0.14	0.64	0.00
2012	0.38	0.45	0.08	0.05	0.44	0.01
2012. 1/4	0.15	0.26	0.02	0.20	0.00	0.01
2/4	0.38	0.23	0.00	0.00	0.26	0.00
3/4	0.24	0.13	0.22	0.03	1.05	0.02
4/4	0.73	0.18	0.10	0.01	0.46	0.00
2013. 1/4	0.57	1.26	0.36	0.00	0.35	0.01
2/4	0.09	0.08	0.04	0.00	0.48	0.00
2013. 07	0.19	0.34	0.00	0.22	0.00	0.00
08	0.18	0.27	0.06	0.15	0.65	0.02
09	0.28	0.14	0.31	0.00	3.67	0.01
10	0.39	0.61	0.06	0.13	1.93	0.00
11	0.74	1.33	0.18	0.41	0.60	0.00
12	0.08	0.07	0.04	0.48	0.21	0.00
2012. 01	0.18	0.21	0.00	0.48	0.00	0.00
02	0.15	0.23	0.00	0.05	0.00	0.02
03	0.13	0.34	0.05	0.00	0.00	0.00
04	0.20	0.20	0.00	0.00	0.14	0.00
05	0.57	0.27	0.00	0.00	0.29	0.00
06	0.37	0.23	0.00	0.01	0.34	0.00
07	0.21	0.09	0.54	0.07	1.79	0.01
08	0.19	0.10	0.11	0.02	0.16	0.01
09	0.32	0.19	0.00	0.00	1.20	0.03
10	0.25	0.32	0.10	0.01	0.31	0.00
11	0.75	1.83	0.00	0.01	0.22	0.00
12	1.18	1.39	0.19	0.00	0.86	0.00
2013. 01	0.97	2.18	1.09	0.00	1.06	0.02
02	0.11	0.20	0.00	0.00	0.00	0.00
03	0.63	1.41	0.00	0.00	0.50	0.00
04	0.11	0.07	0.11	0.00	1.12	0.00
05	0.12	0.16	0.00	-	0.30	0.00
06	0.04	0.01	0.00	0.00	0.02	0.00
07	0.73	0.53	0.00	0.00	0.07	0.03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10	6,636,749	-7.9	6,347,763	19.7	225,210	-16.7	9,020	-8.2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7,471	-17.2
2012	9,794,659	-1.9	7,979,081	-10.3	167,889	-13.0	2,942	-60.6
2012. 1/4	2,438,824	70.8	2,355,123	79.0	45,709	2.7	6,502	19.5
2/4	2,593,520	30.5	2,561,628	23.1	46,458	-20.0	6,156	-14.8
3/4	2,127,652	-27.1	1,540,403	-5.0	31,807	-24.2	6,187	-3.0
4/4	2,634,663	-27.7	1,521,927	-60.8	43,915	-11.7	2,942	-60.6
2013. 1/4	1,838,644	-24.6	1,199,772	-49.1	41,927	-8.3	2,697	-58.5
2/4	2,434,543	-6.1	1,143,533	-55.4	41,455	-10.8	2,961	-51.9
2011. 08	1,504,930	208.9	456,491	5.6	13,713	-7.3	6,546	-43.5
09	892,461	135.0	737,453	87.6	11,892	20.2	6,379	-41.2
10	1,518,020	245.2	1,290,749	177.7	11,696	-38.9	5,903	-42.6
11	1,212,422	49.1	1,827,431	174.3	15,292	-29.3	7,391	-24.8
12	913,575	90.2	761,247	28.8	22,735	-30.0	7,471	-17.2
2012. 01	558,630	34.7	507,442	98.4	12,571	-12.3	7,159	-18.2
02	714,587	77.2	1,023,484	185.9	14,206	18.9	6,746	-20.4
03	1,165,607	91.0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04	816,591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05	827,663	14.3	595,332	-15.0	13,931	-22.8	6,065	-18.7
06	949,266	41.7	882,658	34.6	17,541	-8.2	6,156	-14.8
07	528,696	1.1	475,662	11.3	12,085	-36.8	6,035	-12.6
08	878,978	-41.6	624,679	36.8	10,470	-21.4	5,965	-8.9
09	719,978	-19.3	440,062	-40.3	9,252	-18.9	6,187	-3.0
10	482,405	-68.2	437,787	-66.1	13,496	1.3	4,148	-29.7
11	659,328	-45.6	647,657	-64.6	15,317	8.5	3,068	-58.5
12	1,492,930	63.4	436,483	-42.7	15,102	-23.5	2,942	-60.6
2013. 01	462,034	-17.3	82,466	-83.7	14,348	14.6	2,691	-8.5
02	596,566	-16.5	516,833	-49.5	12,329	-13.2	2,563	-4.8
03	780,044	-33.1	600,473	-27.1	15,250	-19.4	2,697	-58.5
04	767,159	-6.1	106,960	-90.1	17,795	18.7	2,555	-58.7
05	874,153	5.6	565,109	-5.1	15,637	12.2	2,351	-61.2
06	793,231	-16.4	471,464	-20.8	12,554	-28.4	2,961	-51.9
07	608,787	-23.3	477,506	11.8	13,264	-9.8	-	-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충남도 / 미분양주택현황, 국토교통통계누리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3.3=100.0)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10. 07	85.6	1.1	0.0	79.1	98.6	91.2	77.1	3.6	0.1	69.4	92.0	86.7
08	85.5	1.0	-0.2	79.1	98.0	91.2	77.3	3.7	0.2	69.8	92.0	86.8
09	85.5	0.7	0.0	79.2	98.0	91.4	78.0	4.1	0.9	70.2	93.4	87.4
10	85.5	0.3	0.0	79.3	98.0	91.4	78.6	4.6	0.8	70.6	94.6	88.2
11	85.7	0.3	0.2	79.5	98.0	92.0	78.9	4.7	0.4	71.3	94.2	88.7
12	85.8	0.4	0.1	79.7	98.0	92.0	79.2	5.1	0.4	71.9	94.3	88.7
2011. 01	85.9	0.5	0.1	79.9	98.0	92.0	79.5	5.4	0.4	72.3	94.3	88.7
02	86.1	0.7	0.3	80.3	98.0	92.0	80.1	5.9	0.7	73.1	94.8	88.8
03	86.8	1.3	0.8	81.1	98.7	92.1	81.0	6.6	1.2	74.2	95.5	89.0
04	87.7	2.5	1.0	82.3	99.2	92.3	82.2	7.6	1.4	75.7	96.4	89.3
05	88.3	3.2	0.7	83.3	99.2	92.4	82.9	7.6	0.8	76.8	96.4	89.4
06	88.7	3.6	0.5	84.1	99.1	92.0	83.3	8.1	0.5	77.5	96.3	89.5
07	89.4	4.4	0.7	84.9	99.6	92.1	84.1	9.1	1.0	78.3	97.2	89.8
08	90.1	5.5	0.8	85.9	100.0	92.1	85.2	10.3	1.3	79.7	97.8	89.9
09	90.9	6.4	0.9	86.9	100.4	93.3	86.2	10.6	1.2	81.0	98.3	91.9
10	91.7	7.2	0.9	88.1	100.4	93.5	87.2	10.9	1.1	82.3	98.3	91.9
11	92.6	8.1	1.0	89.6	100.3	93.5	88.5	12.1	1.5	84.4	98.3	91.9
12	93.0	8.4	0.4	90.1	100.3	93.5	89.0	12.3	0.6	85.1	98.3	91.9
2012. 01	93.4	8.8	0.5	90.8	100.1	93.5	89.6	12.7	0.6	86.0	98.4	91.9
02	93.8	8.9	0.4	91.4	100.1	93.7	90.1	12.5	0.6	86.7	98.4	91.9
03	94.4	8.8	0.6	92.2	100.2	94.0	90.8	12.0	0.8	87.7	98.4	92.4
04	95.3	8.8	1.0	93.5	100.3	94.2	91.9	11.8	1.2	89.3	98.4	92.7
05	95.8	8.5	0.5	94.2	100.2	94.4	92.4	11.5	0.6	90.1	98.3	93.0
06	96.3	8.6	0.6	94.9	100.2	95.3	92.9	11.5	0.5	90.6	98.6	93.6
07	97.0	8.5	0.7	95.7	100.3	95.7	93.8	11.5	1.0	91.7	98.9	94.7
08	97.3	8.0	0.4	96.1	100.4	96.4	94.3	10.7	0.5	92.2	99.2	95.8
09	97.8	7.6	0.5	96.8	100.5	97.1	95.0	10.2	0.8	93.1	99.4	96.4
10	98.3	7.2	0.5	97.5	100.4	97.6	95.9	10.1	0.9	94.4	99.4	97.2
11	99.0	6.8	0.7	98.4	100.5	98.2	97.4	10.1	1.6	96.6	99.4	97.6
12	99.3	6.8	0.3	98.9	100.3	98.6	98.1	10.3	0.7	97.7	99.2	98.1
2013. 01	99.5	6.5	0.2	99.2	100.3	98.9	98.9	10.5	0.8	98.7	99.7	98.4
02	99.8	6.4	0.3	99.7	100.2	99.5	99.3	10.2	0.4	99.2	99.8	99.1
03	100.0	5.9	0.2	100.0	100.0	100.0	100.0	10.2	0.7	100.0	100.0	100.0
04	100.3	5.2	0.3	100.4	100.0	100.2	100.4	9.2	0.4	100.5	100.1	100.1
05	100.4	4.8	0.1	100.6	100.0	101.1	100.6	8.8	0.2	100.7	100.1	101.1
06	100.6	4.5	0.2	100.8	99.9	101.7	100.9	8.6	0.3	101.1	100.1	101.9
07	100.8	4.0	0.2	101.1	99.8	101.8	101.2	7.9	0.3	101.6	100.0	102.0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고용창출 우수기업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 **개 요**

○ **신청대상** : 충남도내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 중 최근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 10% 이상이면서 최소 10명 이상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체

○ **신청기간** : 2013. 8. 20(화) ~ 9.23(월)

○ **지원내용** : 기업당 1,500만원, 인증 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출보증보험료 10% 우대(회사당 300만원 한도)

○ **선정범위** : 30여개 기업

○ **최종선정** : 2013. 11. 15(금)

■ 시·군의 1차 평가 내용과 서류 확인 등을 거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서류제출** : 시·군 일자리업무 담당부서(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규격 중 CE(유럽공동체마크) 등 제품인증분야 182종의 인증심사 및 제품시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개 업체당 1개 해외규격인증 마크 지원

○ **사업기간** : 2013. 8. 13(공고일) ~ 2013. 12월

○ **지원내용** : 인증 획득 지도기관을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심사, 제품시험 비용 등 최고 500만원

□ **신청서 배부 및 문의처**

○ **신청서** :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 기업 SOS 충남넷(giupsos.chungnam.net) 공지사항

○ **접수기간** : 2013. 8. 13(공고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처** : 충남도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전화:041-635-3414)

상생산업단지 공모사업으로 전환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오는 9월 23까지 각 시·군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문화체육, 생활편의, 의료·복지, 환경보전, 근로생활 개선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업제안서 접수

○ **총사업비** : 360억원(각 시·군 120억원씩, 3곳 선정)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3년간

추석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9월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특별융자 지원
- ○ **지원대상** : 충남도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
- ○ **지원내용** : 융자 금리는 업체별 상이하나 기업과 금융기관간 결정금리의 2% 이자를 지원,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최대금액 2억원
- ○ **신청기간** : 2013. 8. 5~ 14

□ **신청서 배부 및 문의처**
- ○ **신청서 제출** :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 ○ **신청서** :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
- ○ **문의** : 충남도 기업지원과(전화:041-635-2243)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펀더멘털 (Fundamental)

○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뜻함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임

역플라자합의

○ 1995년 4월 G7경제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엔저유도를 위한 합의로서 1985년 9월 대일적자를 메우기 위해 엔고 유도를 위한 플라자합의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하여 역플라자합의로 부름

구매력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양국의 물가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절대적 구매력평가라고도 함

○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한 환율의 변화율은 양국의 인플레이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상대적구매력평가라고 함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 현재의 경기상황,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현재 또는 향후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MMF (Money Market Funds)

○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 금융상품

제조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지수 : Purchasing Managers' Index)

○ 미국 구매관리자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지표

ISM 제조업 지수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 미국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미국 20개 산업의 300개 제조업체들에게 신규수주, 생산, 고용, 물품인도, 재고 등에 관한 설문으로 산출됨

○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미만이면 경기의 수축을 의미함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 현재의 경기상황,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현재 또는 향후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도소매 판매액·생산·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지표에서 추세치를 제거해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 따라서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

○ 동행지수에서 추세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동행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빼준다는 의미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일 때는 불황으로 분류됨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 백운성 · 김양중 · 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1월호

2012년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임병철

2012. 2월호

2012년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황정현
2011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2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2. 3월호

경기종합지수의 개념과 지역경기종합지수의 필요성
전북발전연구원 최성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제정 추진에 관한 일고찰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2012. 4월호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체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에너지소비구조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2012. 5월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2. 6월호

유로존 재정위기 향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2. 7월호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곽선아

2012. 8월호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9월호

충청남도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충남의 기후변화의 영향과 부문별 피해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2. 10월호

국가통계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통계지리정보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충남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효

2012. 11월호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2. 12월호

충남지역 상권과 대형소매점 영업활동 규제방향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중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규획과 충남도의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박경철

2013. 1월호

내포시대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2012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3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3. 2월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변화와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황정현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3. 3월호

GRDP로 살펴보는 충남경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김윤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
충남발전연구원 정우혁

2013. 4월호

화 강세에 따른 충남경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의미있는 변화, 'Long life design & Recycle'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박준형

2013. 5월호

문화마케팅 수단으로서 도시브랜드
충남발전연구원 이충훈

공주 · 부여 역사도시의 관광산업기반 조성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2013. 6월호

충남 협동조합 현황과 과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청남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향 및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영일

2013. 7월호

美 출구전략에 따른 세계 경제 향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수희
목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재호

2013. 8월호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준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NANUM COMMUNICATION

나눔커뮤니케이션 NaNum communication

다시 뛰는 여성의 희망파트너

COMPANY/나눔커뮤니케이션은?

나눔커뮤니케이션은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소벤처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인터넷마케팅 전문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BUSINESS AREA
사/업/영/역

- 인터넷 쇼핑몰 제작 및 운영
- 블로그 제작 및 관리 (Blog)
- 페이스북 개설 및 관리
- 카페 제작 및 이벤트 대행
- 오픈마켓 대행
- 상품사진 촬영 및 보정
- 소셜 마케팅 교육 진행
- NANUM COMMUNICATION

VISION/나눔커뮤니케이션 비전은?

◆고객 맞춤형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
공공기관홍보, 지역축제홍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사회 재진출을 희망하는 여성 일자리 제공
사회 재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소셜마케팅 기술 교육 후 일자리제공 및 각종 교육사업과 지식나눔 봉사활동사업 진행

◆강사 양성 및 소셜네트워크 교육
자체 강사 양성을 통해 사회 재진출 희망여성, 저소득층 아이들, 노인들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무료교육 실시

◆마케팅 사회적기업 모델 수립 및 전파
소셜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사회적기업 모델 수립 및 운영

위 기업은 충청남도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